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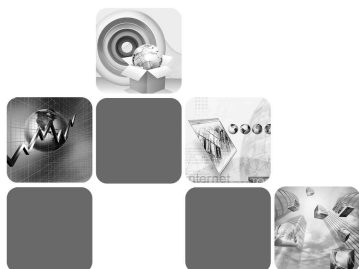
2023-12호



ISSN 2982-8317

월간 ICT 산업 동향





Contents

I. 수출 동향 1

- | | |
|--------------|--------|
| ① 개요 | ② 반도체 |
| ③ 디스플레이 패널 | ④ 휴대폰 |
| ⑤ 컴퓨터 및 주변기기 | ⑥ 이차전지 |
| ⑦ SW | |

II. 트레이드 GPS 31

1. UAE - 가정용 전기기기 32
2. 자동제어기 37
3. Ex-Briefing 41

III. 부록 45

1. ICT 생산 통계 46
2. 2023년 11월 ICT 산업 수출입 통계(잠정) 47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54
4. ICT 부분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구매 금액 .. 62
5.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63





I

수출 동향



I 수출 동향¹⁾

1 개요

- '23.11월 ICT 수출은 178.8억 달러(7.6%↑), 수입은 114.4억 달러(△10.9%) 기록
- (수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안한 대내외 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한 178.8억 달러를 기록하며 17개월 만에 반등
 -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이차전지가 상승한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가 하락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 성장 시현

표 1-1 주요 ICT 품목별 및 국가별 수출

구 분 (억 달러, %)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이차전지	전 체
전세계	95.6 (10.7)	20.8 (3.7)	15.5 (12.2)	7.5 (△22.7)	9.0 (23.4)	178.8 (7.6)
중국(홍콩)	56.0 (27.0)	5.7 (△15.7)	9.7 (13.1)	1.9 (△33.4)	0.5 (21.0)	80.9 (15.5)
미국	5.3 (△0.5)	0.1 (12.4)	1.4 (145.4)	1.8 (△44.3)	5.1 (46.8)	20.6 (12.5)
일본	0.9 (11.1)	0.1 (△29.5)	0.1 (11.0)	0.3 (△24.7)	0.5 (△9.1)	3.2 (2.1)
EU	2.6 (59.8)	0.4 (6.5)	1.4 (△21.6)	1.5 (10.8)	1.3 (4.4)	10.2 (5.4)
베트남	12.5 (△1.1)	13.0 (7.5)	1.3 (3.3)	0.5 (18.1)	0.2 (△30.5)	31.2 (4.1)

자료 : IITP, KTSPI

- (수입) 전년 동월 대비 10.9% 하락한 114.4억 달러를 기록하며 내림세 지속
 - 휴대폰(10.0억 달러, 76.9%↑), 이차전지(7.1억 달러, 16.1%↑), 디스플레이(4.5억 달러, 37.6%↑)는 증가했으나 반도체(52.5억 달러, △24.0%), 컴퓨터 및 주변기기(9.8억 달러, △24.4%)는 감소
- (무역수지) 중국(홍콩 포함, 37.5억 달러), 베트남(21.9억 달러), 미국(14.0억 달러), EU(4.0억 달러) 등 주요국에 대해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64.4억 달러 흑자 기록

표 1-2 ICT 및 전체 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억 달러, %)		2023년		2022년	
		11월P	1~11월P	11월	1~11월
수출	전체 산업	558.0 (7.8)	5,751.2 (△8.5)	517.7 (△14.2)	6,287.4 (7.7)
	ICT	178.8 (7.6)	1,685.2 (△22.1)	166.2 (△22.7)	2,163.5 (5.3)
수입	전체 산업	520.0 (△11.6)	5,894.3 (△12.3)	588.5 (2.6)	6,717.5 (21.3)
	ICT	114.4 (△10.9)	1,255.6 (△10.8)	128.3 (0.5)	1,407.0 (15.5)
무역수지	전체 산업	38.0	△143.1	△70.8	△430.1
	ICT	64.4	429.6	37.9	756.5

자료 : IITP, KTSPI

1) 관세청 통관 기준 통계를 IITP가 ICT 분류체계에 맞게 재가공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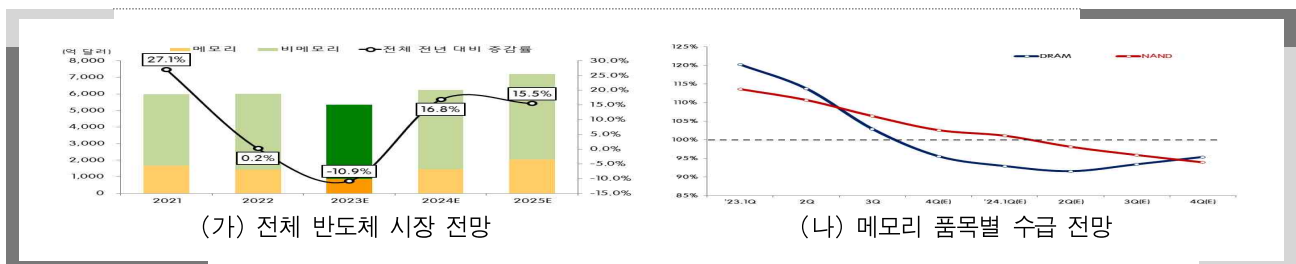
2 반도체

1) 수출 환경

□ 올해 반도체 시장은 부진이 예상되나 메모리·비메모리 회복으로 내년엔 성장 기대

- **(’23년 전망)** 메모리 낙폭이 확대된 가운데 비메모리마저 반락하면서 올해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0.9% 하락한 5,345억 달러로 위축될 전망(Gartner, ’23.10월)
 - AI·전기차·자율주행차向 제품 수요 강세 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서버·PC·스마트폰 등 전방 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4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메모리 반도체 : 877억 달러, △38.8%) 수급 불균형에 따른 D램·낸드플래시 등 주요 제품 가격 하락, 일반 서버向 수요 약세 등으로 하락폭이 커지면서 2년 연속 내림세를 이어갈 전망
 - (비메모리 반도체 : 4,468억 달러, △2.1%) 3년 연속 호조를 지속했으나 글로벌 경기 악화 여파에 따른 주요 응용처 수요 부진, 파운드리와 성숙 및 선단 공정 가동률 감소 등으로 반락 예상
 - ※ 파운드리 가동률 추이 : (’21) 97.6% → (’22) 91.7% → (’23E) 74.3% → (’24E) 80.4% → (’25E) 84.4%
- **(’24년 전망)** 비메모리 반등과 더불어 메모리가 두 자릿수 증가로 성장을 주도하면서 내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6.8% 증가한 6,244억 달러로 확대 전망(Gartner, ’23.10월)
 - 5G·AI·HPC(고성능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 발전 및 활용 증가, 주요 세트 제품들의 고용량 고성능화, 고객사 재고 정상화 등으로 메모리·비메모리가 동반 상승 전환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
 - (메모리 반도체 : 1,458억 달러, 66.3%↑) 과잉 재고 해소에 따른 주요 제품 가격 회복,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수요 확대 등으로 3년 만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할 전망
 - ※ D램은 ’23.4분기(수요 대비 공급 비율 95.5%) 부터, 낸드플래시는 ’24.2분기(98.1%)부터 수요가 공급을 넘어 서면서 공급 과잉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
 - (비메모리 반도체 : 4,786억 달러, 7.1%↑) 모바일·차량·HPC·IoT 등 전방 시장 업황 회복, 고객사 재고 건전화 및 주문 증가에 따른 파운드리 수요 증가 등으로 성장세 전환을 기대

그림 1-1 | 전체 반도체 시장 및 메모리 품목별 수급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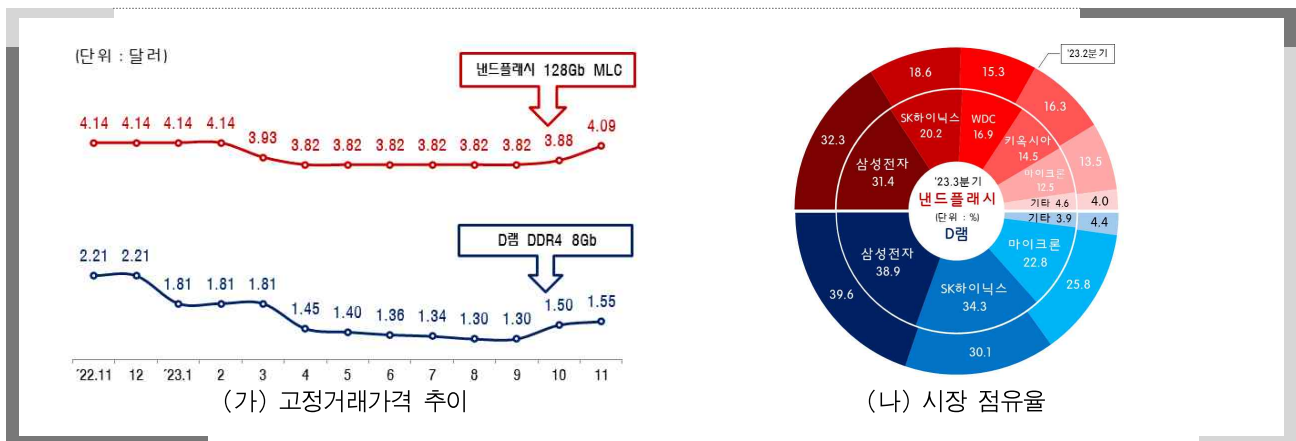


자료 : Gartner, 2023.10.

□ 메모리 가격이 우상향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이 시장 회복을 주도

- '23.11월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고정거래가격은 2개월 연속 상승세(Dramexchange, '23.11월)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 효과 가시화, IT기기 제조업체들의 메모리 재고 소진 등으로 D램 및 낸드플래시 등 주요 메모리 고정거래가격은 2개월 연속 상승
 - **(D램)** PC용 범용제품(DDR4 8Gb 기준)은 '23.10월(1.50달러, 15.4%↑)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2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가운데 11월도 전월 대비 3.3% 오른 1.55달러로 오름세 지속
 - **(낸드플래시)** 메모리카드·USB 범용제품(MLC 128Gb 기준)은 '22.6월(4.67달러, △2.9%) 반락 후 하락 및 보합을 반복하다 '23.10월(3.88달러, 1.6%↑) 반등을 기록. 11월은 4.09달러(5.4%↑)로 상승폭 확대
 - ※ 낸드플래시(MLC 128Gb 기준) 고정거래가격은 '19.7월(4.01달러, 2.0%↑)부터 4달러대를 유지하다 '23.3월(3.93달러, △5.1%) 3달러대로 내려앉았으나 11월은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달성하며 4달러대로 복귀
 - 한편 연말 IT기기 성수기에 돌입하면서 PC·스마트폰 등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확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지난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가격 인상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메모리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그림 1-2 |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가격 추이 및 시장 점유율



자료 : Dramexchange 재인용, 고정거래가격, 2023.11. / TrendForce, 2023.12.

- '23.3분기 글로벌 D램 및 낸드플래시 매출액이 증가한 가운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업체들은 1위·2위를 수성하며 메모리 시장을 선도(TrendForce, '23.12월)
 - **(D램)** AI向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 PC·스마트폰 등 IT기기 고용량화 등으로 23.3분기 글로벌 D램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8.0% 증가한 134억 8,000만 달러로 2분기 연속 오름세 지속
 -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전분기 대비 15.9% 증가한 5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점유율 1위 (38.9%)를 수성한 가운데 SK하이닉스(46억 2,600만 달러, 34.4%↑)는 HBM·DDR5 등 차세대 제품 판매 약진으로 역대 최대 점유율(34.3%)을 기록하며 삼성전자를 추격



-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 격차는 ('23.2분기) 9.5%p → (3분기) 4.6%p로 크게 축소
- 한편 마이크론은 전 분기 대비 4.2% 증가한 30억 7,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점유율은 3.0%p 하락한 22.8%로 3위에 자리매김
- **(낸드플래시)** 주요 업체들이 대규모 감산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업황 회복에 대비한 고객사의 재고 확보 노력, 가격 회복 기조 등으로 전 분기 대비 2.9% 증가한 92억 2,910만 달러를 기록하며 확장세
- 업체별로는 삼성전자(29억 달러, 0.0%)가 점유율이 소폭 축소($\Delta 0.9\text{p}$)했음에도 불구하고 1위 (31.4%)를 지속했으며, SK하이닉스(18억 6,400만 달러, 11.9%↑)는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20.2% 점유율로 입지를 확대하며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축소(13.7%p → 11.2%p)
- WDC(15억 5,600만 달러, 13.0%↑)와 키옥시아(13억 3,600만 달러, $\Delta 8.6\%$)는 엇갈린 실적을 내놓으면서 3위·4위 순위를 자리바꿈한 가운데 5위에 자리매김한 마이크론(11억 5,000만 달러, $\Delta 5.2\%$)은 부진을 겪으며 점유율이 축소

□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 부품인 HBM 생산업체들의 수혜 예상

- 엔비디아가 독점하던 AI 반도체 시장에서 AMD,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신제품을 공개하며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이 격화될 전망
- 생성형 AI 산업 급성장 등으로 AI 반도체가 유망시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23.12.6일 미국 반도체 설계 업체 AMD가 '어드밴싱 AI' 행사를 개최하고 차세대 AI 반도체 '인스팅트(Instinct) MI300'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을 독점 중인 엔비디아 추격을 공식화
 - ※ AI 반도체는 LLM(거대언어모델) 등 AI 기술에 필요한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CPU(중앙처리장치), GPU(그래픽처리장치) 등을 의미하며 스마트폰·자율주행·로봇·헬스케어·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 인스팅트 MI300 시리즈는 GPU인 MI300X, GPU와 CPU를 결합한 형태인 MI300A로 구성
- 특히 MI300X는 엔비디아의 GPU인 'H100' 대비 2.4배 메모리 밀도, 1.6배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해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추론 능력에서 최대 2배 앞선 성능을 강조하면서 H100의 대안으로 부각
 - ※ H100은 생성형 AI 모델의 기반이 되는 LLM에 적용해 이를 훈련하도록 설계된 칩으로 구글·아마존·메타·MS 등이 생성형 AI 툴 개발에 사용 중인 가운데 공급 부족, 높은 가격 등으로 고객사들은 칩 확보에 난항
- 메타는 AI 스티커 생성 및 이미지 편집 등 AI 추론 작업, MS·오라클은 클라우드, 오픈AI는 자사 프로그래밍 언어 '트리톤'에 MI300X를 적용할 것이라 발표하는 등 약 10개 업체가 신제품 채택 예정
 - ※ '23.12월 AMD가 수주한 인스팅트 MI300 시리즈 물량은 25~30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돼 내년 AMD의 AI 반도체 매출 전망치(20억 달러)를 감안하면 이미 매진된 것으로 추정
- 한편 '23.12.14일 인텔이 신제품 AI 반도체 '가우디3' 시제품을 공개하고 내년 출시를 예고하는 등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확대 등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 가우디3는 전작 대비 처리 속도를 4배, HBM 탑재 용량을 1.5배 향상시켜 LLM 처리 성능을 확대

※ 엔비디아는 '23.11.13일 H100 업그레이드 버전인 H200을 공개했으며, 내년 출시 계획을 발표

- 엔비디아, AMD,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잇따라 신제품 출시를 발표하면서 HBM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업체들에 낙수효과 예상
 - 생성형 AI 시장 성장에 따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의 AI 반도체 투자 및 신제품 출시 확대 등으로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핵심 부품인 HBM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업체의 수혜를 기대
 - ※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기존 D램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인 고성능 D램으로 AI·머신러닝·HPC·XR·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기술의 핵심 역할을 수행
 - 다만 AMD가 인스팅트 MI300 시리즈에 적용되는 HBM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공급사로 선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공급받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HBM 제작이 가능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 증권가에서는 AMD의 신제품에 탑재될 HBM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량 공급할 것으로 예상(한국경제, '23.12.11일)
 - 한편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24.4분기까지 생산능력(CAPA)을 올해 말 대비 2.5배 증설할 계획이나 고객사들의 신제품 출시 확대 및 시장 경쟁 심화 등을 고려하면 HBM 공급 부족은 지속될 전망
 - ※ HBM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생산 수율 문제가 불거져 실제 생산량은 신규 생산능력의 70% 수준에 불과. 한편 마이크론의 경우 HBM3(4세대)를 건너뛰고 HBM3E(5세대) 생산 계획을 발표한 만큼 생산 수율 검증이 필요해 실제 HBM 생산량 증가에 기여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

2) 수출 동향

□ '23.11월 반도체 수출, 시스템은 부진했으나 메모리 상승폭 확대로 올해 첫 성장 달성

- (품목별) 시스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메모리가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한 95.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6개월 만에 상승 전환
 - PC·스마트폰 등 세트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IT기기의 고용량화, AI向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수급 상황 개선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부진이 완화, 점진적 개선 흐름을 보인 끝에 '22.7월(113.8억 달러, 3.1%↑) 이후 처음으로 성장 시현
 - (메모리 반도체 : 52.4억 달러, 36.4%↑)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 효과 가시화에 따른 D램·낸드 플래시 등 주요 제품 가격 상승, 중국·베트남·EU 등 주요 교역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하는 등 2개월 연속 오름세
 - (시스템 반도체 : 38.9억 달러, △8.1%) IDM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전방 시장 회복 지연 등으로 패키징·파운드리·팹리스 등 주요 시스템 공정이 위축된 가운데 11월 기준 '22년 최대 수출(42.3억 달러, 8.3%↑) 달성에 따른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11개월 연속 하락



※ 시스템 공정별 수출액 및 증감률(단위 : 억 달러) : (IDM) 17.4, 2.3%↑, (패키징) 17.3, △9.2%, (파운드리) 2.8, △28.9%, (팹리스) 1.3, △42.0%

- (지역별) 최대 교역국인 중국(홍콩 포함)은 호조세를 지속했으나 베트남·미국 등은 부진
 - 중국(홍콩 포함, 56.0억 달러, 27.0%↑)은 메모리MCP·D램 등 메모리(42.5%↑) 성장폭이 확대된 가운데 시스템(7.1%↑)도 반등하면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며 올해 최대 수출 달성
 - 베트남(12.5억 달러, △1.1%)은 메모리(14.6%↑)가 두 자릿수 성장률로 상승 전환했으나 시스템(△11.7%)이 반락하면서 11개월 연속 하락. 다만 낙폭은 축소
 - 미국(5.3억 달러, △0.5%)은 메모리(57.6%↑)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25.5%)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소폭 감소하면서 14개월 연속 내림세
 - EU(2.6억 달러, 59.8%↑)는 시스템(16.3%↑)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메모리(134.4%↑)가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올해 최고 성장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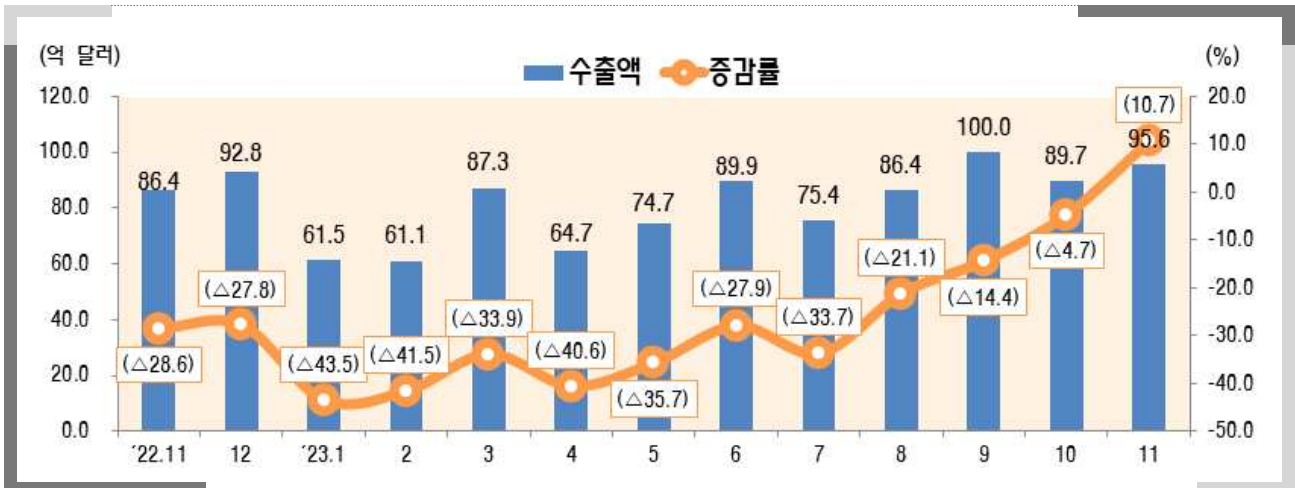
표 1-3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11	12	'23.1	2	3	4	5	6	7	8	9	10	11
반도체	86.4 (△28.6)	92.8 (△27.8)	61.5 (△43.5)	61.1 (△41.5)	87.3 (△33.9)	64.7 (△40.6)	74.7 (△35.7)	89.9 (△27.9)	75.4 (△33.7)	86.4 (△21.1)	100.0 (△14.4)	89.7 (△4.7)	95.6 (10.7)
메모리	38.4 (△49.7)	44.4 (△47.2)	27.7 (△57.3)	29.2 (△53.9)	45.7 (△44.3)	29.3 (△54.1)	34.1 (△53.1)	47.7 (△38.8)	36.0 (△41.7)	42.5 (△26.1)	54.3 (△18.0)	45.1 (1.0)	52.4 (36.4)
D램	18.2 (△51.0)	24.5 (△40.8)	11.7 (△63.6)	12.6 (△60.5)	19.6 (△49.5)	14.7 (△54.5)	15.8 (△57.4)	19.0 (△51.0)	16.9 (△48.3)	18.1 (△35.2)	23.4 (△24.6)	19.0 (△8.1)	23.2 (27.8)
낸드	5.2 (△16.8)	3.5 (△45.8)	3.6 (△30.3)	4.9 (△21.8)	6.4 (△14.6)	3.5 (△52.5)	3.7 (△53.9)	4.7 (△40.3)	3.6 (△51.9)	5.6 (△8.9)	7.1 (5.6)	5.6 (△0.6)	5.8 (11.6)
메모리 MCP	13.5 (△55.4)	14.9 (△52.6)	11.1 (△53.9)	10.6 (△49.6)	16.2 (△47.0)	9.8 (△50.3)	12.7 (△47.1)	21.4 (△14.5)	14.3 (△21.9)	16.7 (△19.6)	20.7 (△15.9)	18.5 (12.2)	20.2 (49.6)
메모리 MCOS	1.5 (△47.3)	1.5 (△70.1)	1.2 (△65.7)	1.0 (△75.9)	3.4 (△33.1)	1.1 (△73.9)	1.7 (△50.0)	2.4 (△59.6)	1.1 (△65.3)	1.9 (△24.0)	2.8 (△21.5)	1.8 (6.5)	3.1 (108.7)
시스템 반도체	42.3 (8.3)	42.7 (9.9)	29.0 (△25.0)	26.9 (△25.5)	36.3 (△18.4)	31.2 (△22.1)	36.4 (△4.9)	37.8 (△9.6)	34.7 (△25.9)	39.7 (△14.9)	41.6 (△7.8)	40.6 (△7.4)	38.9 (△8.1)
개별 소자	1.3 (△9.5)	1.2 (△17.6)	1.2 (△14.0)	1.2 (△8.9)	1.5 (△3.5)	1.3 (△10.0)	1.3 (△12.6)	1.4 (2.8)	1.4 (12.7)	1.4 (6.8)	1.3 (△3.0)	1.4 (8.0)	1.6 (20.8)
광전 소자	2.9 (16.2)	3.0 (22.4)	2.2 (△5.9)	2.2 (9.2)	2.2 (11.1)	1.6 (△21.1)	1.6 (△11.2)	1.8 (△13.2)	2.1 (△9.4)	1.6 (△34.2)	1.5 (△39.0)	1.4 (△49.3)	1.5 (△48.4)

자료 : IITP, KTSPI

그림 1-3 반도체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4 반도체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홍콩)	715.8	-6.8	54.7	중국(홍콩)	56.0	27.0	58.6	484.4	-27.9	54.7
2	베트남	162.8	16.0	12.4	베트남	12.5	-1.1	13.0	112.9	-23.9	12.7
3	대만	124.0	15.9	9.5	대만	7.6	-18.3	7.9	84.5	-26.9	9.5
4	미국	95.5	0.3	7.3	미국	5.3	-0.5	5.5	48.4	-43.9	5.5
5	싱가포르	59.3	54.7	4.5	싱가포르	3.7	-27.8	3.9	43.7	-19.8	4.9
6	필리핀	37.4	-1.4	2.9	말레이시아	2.4	44.2	2.5	17.6	-0.3	2.0
7	인도	22.7	79.8	1.7	인도	1.3	-25.6	1.4	17.3	-16.1	1.9
8	말레이시아	19.2	16.2	1.5	필리핀	1.2	-37.4	1.3	15.5	-56.3	1.8
9	일본	13.5	-2.9	1.0	일본	0.9	11.1	0.9	13.0	3.7	1.5
10	독일	10.1	-6.6	0.8	브라질	0.7	36.5	0.8	7.7	-16.6	0.9

자료 : IITP, KTSPI



1) 수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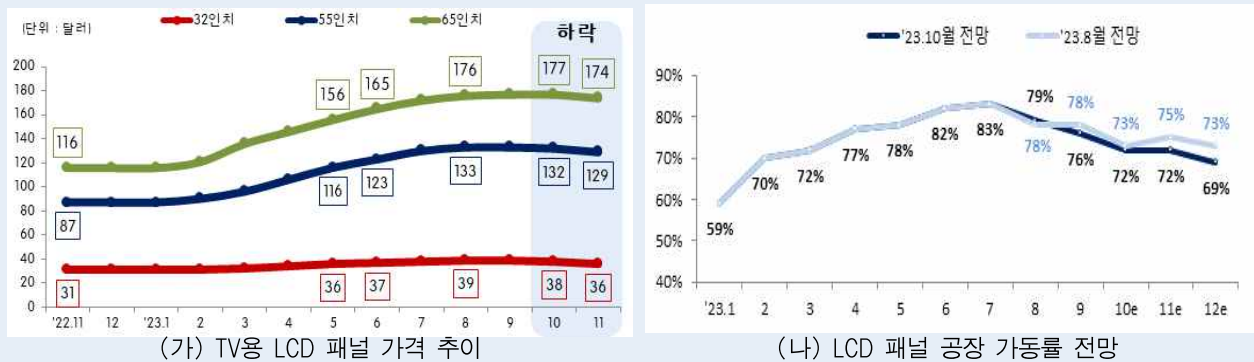
□ 올해에 이어 내년 디스플레이 시장은 IT기기 등 OLED 본격 적용 확대로 업황 개선이 기대

- (시장 전망) '23년 약한 회복세에 이어 '24년은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
 - 올해 디스플레이 시장(34.7억 대, 0.9%↑)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 수요 약화 등에도 불구하고 中 '618 쇼핑 축제', 하반기 초대형 OLED TV 신제품 출시, 블랙프라이데이 등의 완만한 성수기 수요 회복에 힘입어 소폭 반등할 전망
 - '24년(35.1억 대, 1.0%↑)은 中 LCD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 추가 하락 가능성 등으로 1분기까지 어려움이 지속되겠으나 하반기 파리올림픽, UEFA 유로 2024 등 대형 스포츠 특수에 대한 기대, IT기기·자동차용 OLED 패널 수요 확대 등으로 회복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
 - ※ 내년 OLED 패널 시장(9억 3,487만 대, 8.4%↑)은 애플의 IT기기 內 OLED 적용 확대 등으로 회복 반등하며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출하량 기준) 내 비중도 26.7%(전년 대비 1.8%p↑)로 확대될 전망(OMDIA, '23.11월)
- (TV 시장) 올해는 제자리걸음에 그치겠으나 내년을 기점으로 시장 불황 타파가 기대
 - '23년(2억 352만 대, 0.1%↑)은 TV 수요 침체 등으로 정체 수준에 머물 전망이나 '24년(2억 942만 대, 2.9%↑)부터는 OLED TV 출하 확대(650만 대, 16.1%↑)와 더불어 생성형 AI의 TV 탑재,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으로 불황이 일부 해소되며 상승 회복이 기대(전자신문, '23.12.10일, 원소스 OMDIA)

○ LCD 패널 가격 동향

- TV용 LCD 패널 가격은 통상 TV 수요 호조 → 세트업체들의 LCD 패널 구매 증가 → LCD 패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순행적 흐름이나, 지난 1년간의 흐름을 보면 TV 시장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업체들의 과도한 LCD 패널 생산량 감산으로 LCD 패널 가격이 지속 상승하며 생태계를 역행
 - ※ '22년 글로벌 TV 시장(2억 328만 대, △4.8%)의 큰 폭 하락에 이어 '23년은 2억 352만 대(0.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 그칠 전망(한국경제, '23.12.12일, 원소스 OMDIA)
- '23.10월부터 LCD 패널 가격이 다시 하락 진입하였으나 중국 업체들이 패널 가격 유지를 위해 또 한 번 생산량을 감산하며 가격 하락을 막아낼 공산이 높은 것으로 관측
 - ※ LCD 패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24.2월 춘절 등 연휴를 이유로 2주간 생산 중단을 계획하는 등 '24.1분기 팍 가동률을 60% 이하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관측
-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내년 LCD 패널 가격의 불안정성 고조 등으로 삼성전자·LG전자 등 국내 TV 세트 업체의 제조 원가 부담 확대 등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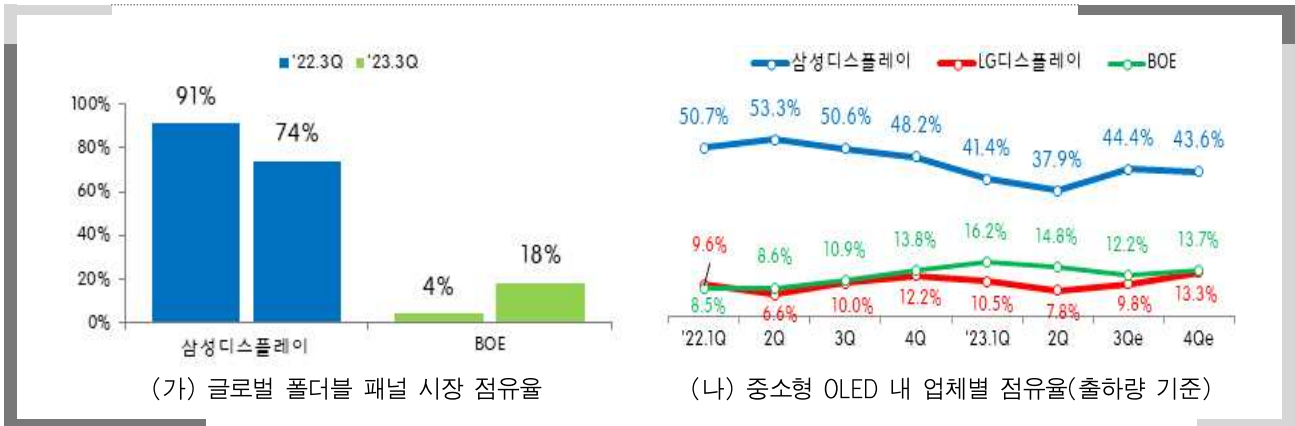
〈TV용 LCD 패널 가격 추이 및 LCD 패널 공장 가동률 전망〉



자료 : OMDIA, 2023.11.

□ 폴더블폰·IT기기向 중소형 OLED 시장 성장 속, 시장 침투력 확대를 위한 中 투자도 확대

-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폴더블 패널 시장에서 中은 내수를 기반으로 韓 추격에 박차
 - ※ '23.3분기 글로벌 폴더블 패널 시장은 전년 대비 41%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인 890만 대를 기록(DSCC, '23.12월)
 - 폴더블 패널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는 '22.3분기 91%의 독보적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나 中 스마트폰 업체들의 폴더블폰 시장 확대로 BOE 등의 폴더블 패널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23.3분기 점유율은 74%로 축소
 - 반면 BOE는 '22.3분기 4%에 불과하였으나 내수 시장을 발판 삼아 점유율을 확대하며 올해 3분기 18%를 차지하며 입지를 강화. 폴더블 패널 시장 내 국내 업체의 주도권 축소가 우려
- 글로벌 기업 애플의 신규 수요 발생 등에 따라 中 BOE는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를 단행
 - 中 BOE가 쓰촨성 청두 지역에 630억 위안(약 11조 원)을 투자하여 8.6세대 OLED 생산 공장을 신설할 것이라 발표해 주목('23.11.28일)
 - ※ 해당 공장은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은 두 번째 8세대 OLED 공장으로 '23.4월 삼성디스플레이가 발표한 8.6세대 OLED 투자금(4.1조 원) 대비 3배 수준인 점도 눈길
 - 최근 애플이 스마트폰 이외에도 IT기기인 아이패드·맥북·노트북 등으로 OLED 채용 확대를 예고하였고 韓 업체들이 중소형 OLED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
 - 구체적 양산 시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향후 2~3년 이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월 생산량은 3.2만 대 수준으로 추정. 한편 일각에서는 OLED 양산 기술 개발을 위한 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지적하며 국내 업체들과의 점유율 격차 축소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 제기
 - ※ 글로벌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의 합산 점유율은 줄곧 60%대를 상회하였으나 '23년부터는 하회하는 실정. 국내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22.1Q) 60.4% → (2Q) 60.0% → (3Q) 60.6% → (4Q) 60.4% → ('23.1Q) 51.8% → (2Q) 45.7% → (3Qe) 54.1% → (4Qe) 56.9%로 관측(OMDIA, '23.11월)

그림 1-4 | 글로벌 폴더블 패널 시장 점유율 및 중소형 OLED 내 업체별 점유율(출하량 기준)


자료 : DSCC, 2023.12. / OMDIA, 2023.11.

- 삼성디스플레이, 내년 모니터용 OLED 고객사 확보를 목표로 신제품 양산에 돌입
 - 동사는 고사양 게이밍, 고화질 콘텐츠 등을 즐기는 소비자를 겨냥해 UHD(3,840×2,160) 해상도를 구현하는 31.5인치 QD-OLED 양산을 본격 시작해 눈길('23.12월)
 - 특히 UHD 해상도를 구현하기 위해 QD 발광층에 초정밀 잉크젯 프린팅²⁾ 기술을 적용하였고 잉크젯 노즐 및 분사량을 최적화해 픽셀 밀도를 140PPI(1인치당 픽셀 수)까지 향상시킨 점에 주목
 - ※ 해당 제품은 자발광 모니터 중 가장 높은 픽셀 밀도를 보유. 140PPI는 현재 출시 중인 65인치 8K TV와 동등한 수준
 - 또한 '24년엔 자발광 모니터 중 최초로 360Hz 주사율을 구현하는 27인치 QHD(2,560×1,440) 해상도의 QD-OLED 출시도 예고. 내년 모니터용 QD-OLED 출하량 및 라인업 등을 확대하여 고해상도·고주사율 프리미엄 모니터 시장을 적극 공략할 방침
 - ※ 현재까지 출시된 자발광 모니터의 최대 주사율은 240Hz 수준이며, 삼성디스플레이는 자사의 독자적인 AI 기반 알고리즘인 '퀀텀 인핸서(Quantum Enhancer)'라는 기술을 통해 주사율을 개선

2) 수출 동향

□ '23.11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 대비 3.7% 늘어난 20.8억 달러로 집계

- (품목별) LCD, OLED 등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전체 수출은 4개월 연속 20억 달러대를 상회
 - (LCD 패널 : 4.5억 달러, 22.9%↑) 국내 업체의 TV용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 가격 상승 및 출하 확대, IT기기·모니터용(1.2억 달러, 13.0%↑) 등의 성장으로 4개월 연속 증가

2) 잉크젯 프린팅은 용액 형태의 발광 소재 등을 잉크젯 헤드 노즐을 통해 원하는 곳에 미세하게 분사한 후 건조하여 OLED 화소를 형성하는 기술

- (OLED 패널 : 14.3억 달러, 1.4%↑) IT기기·자동차 등 신시장 성장과 TV·모니터 등의 OLED 채용 증가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7개월 연속 10억 달러대를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 지속
 - ※ OLED 수출은 휴대폰용(12.5억 달러, △3.0%) 등은 반락하였으나 TV용(0.9억 달러, 123.0%↑), 모니터용(0.5억 달러, 6.1%↑), 노트북용(0.4억 달러, 17.6%↑) 등의 호조로 성장세 유지
- (부분품 : 2.0억 달러, △12.8%) 편광판·BLU 등의 가격 및 수요 하락 등으로 장기간 부진이 지속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 등은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베트남·멕시코·인도 등의 신흥국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지속 성장
 - 베트남(13.0억 달러, 7.5%↑)은 LCD 패널(0.6억 달러, 146.9%↑)의 급증, OLED(12.1억 달러, 4.3%↑)·부분품(0.3억 달러, 16.9%↑) 등의 견조세로 5개월 연속 상승 기록
 - 중국(홍콩 포함, 5.7억 달러, △15.7%)은 OLED 패널(1.6억 달러, △28.1%), 부분품(1.4억 달러, △17.1%) 등의 역성장으로 '22.5월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LCD 패널(2.8억 달러, △5.7%)의 점진적 낙폭 축소 등으로 하락세는 8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는 양상
 - ※ 對중국(홍콩 포함) 패널 수출 추이(%) : ('23.3) △56.8, (4) △50.2, (5) △39.6, (6) △30.3, (7) △27.2, (8) △20.9, (9) △16.4, (10) △16.1, (11) △15.7
 - 멕시코(0.8억 달러, 484.8%↑)는 연말 특수 등에 힘입어 LCD 패널(0.5억 달러, 788.0%↑)의 폭발적인 성장과 부분품(0.1억 달러, 15.9%↑)의 반등 등으로 3개월 연속 성장. 특히 OLED 패널(0.2억 달러, 1,293.5%↑) 수출이 4개월 연속 고공행진을 지속해 눈길
 - 인도(0.3억 달러, 128.2%↑)는 디왈리 축제, 크리켓 월드컵 등으로 전방 수요가 늘어나며 OLED(0.3억 달러, 193.6%↑), LCD(0.1억 달러, 44.7%↑) 등의 호조로 6개월 연속 성장

표 1-5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11	12	'23.1	2	3	4	5	6	7	8	9	10	11
패널	20.1 (△17.3)	16.0 (△35.2)	14.6 (△37.7)	13.0 (△42.2)	14.3 (△41.4)	14.2 (△30.5)	16.0 (△12.0)	15.9 (△11.1)	18.9 (△5.3)	21.3 (1.8)	20.0 (0.9)	22.9 (13.1)	20.8 (3.7)
LCD	3.6 (△33.5)	3.4 (△39.6)	3.0 (△44.7)	3.0 (△43.1)	2.8 (△53.3)	2.9 (△43.9)	3.3 (△31.9)	3.5 (△19.5)	4.0 (△15.0)	4.1 (△24.4)	3.8 (6.1)	4.1 (14.1)	4.5 (22.9)
OLED	14.1 (△7.6)	10.2 (△33.7)	9.6 (△31.3)	8.0 (△39.3)	9.1 (△35.9)	9.2 (△21.6)	10.6 (6.6)	10.2 (△6.7)	12.5 (△0.2)	14.6 (16.3)	13.9 (2.8)	16.6 (15.6)	14.3 (1.4)
부분품	2.3 (△34.2)	2.4 (△35.3)	2.1 (△50.1)	2.1 (△50.4)	2.4 (△42.6)	2.1 (△40.1)	2.1 (△37.8)	2.2 (△16.3)	2.4 (△12.5)	2.5 (△12.5)	2.3 (△15.7)	2.2 (△4.4)	2.0 (△12.8)

자료 : IITP, KTSPI

그림 1-5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6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베트남	128.9	2.9	52.8	베트남	13.0	7.5	62.3	116.9	-3.2	60.9
2	중국(홍콩)	93.6	-12.7	38.3	중국(홍콩)	5.7	-15.7	27.4	55.0	-37.0	28.6
3	멕시코	6.5	153.2	2.7	멕시코	0.8	484.8	3.8	6.7	9.7	3.5
4	헝가리	2.9	239.5	1.2	인도	0.3	128.2	1.6	3.0	23.7	1.6
5	인도	2.6	128.2	1.1	헝가리	0.2	-3.0	1.2	1.6	-38.3	0.8
6	미국	1.7	-23.5	0.7	미국	0.1	12.4	0.6	1.7	9.8	0.9
7	일본	1.6	59.8	0.7	브라질	0.1	165.1	0.5	0.7	60.5	0.4
8	슬로바키아	0.8	172.6	0.3	일본	0.1	-29.5	0.4	1.0	-32.5	0.5
9	말레이시아	0.7	147.6	0.3	슬로바키아	0.1	48.9	0.3	0.6	-28.0	0.3
10	대만	0.6	-8.4	0.2	폴란드	0.0	24.3	0.2	0.5	45.7	0.3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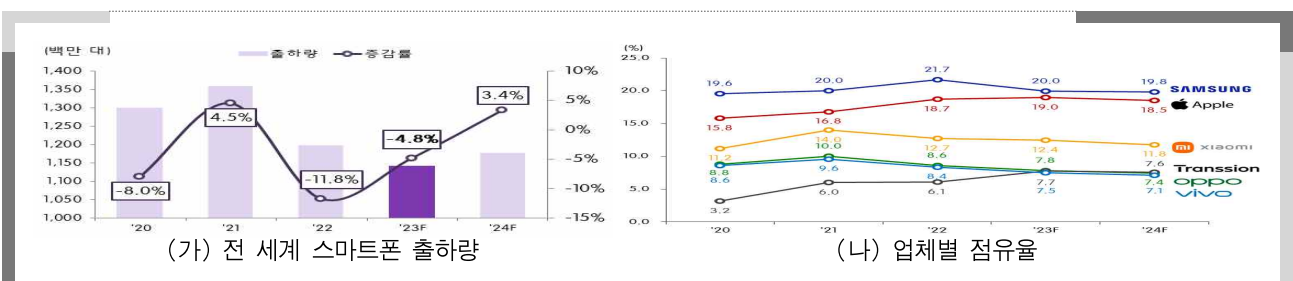
4 휴대폰

1) 수출 환경

□ 스마트폰 시장, 올해 부진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1위 수성 전망

- **(전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11억 4,020만 대로 내림세가 예상되나 하락폭 축소 후 내년엔 상승 전환을 기대(TechInsights, '23.12월)
 -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약세, 혁신 기술 부재에 따른 제품 교체율 하락, 중고폰 수요 증가 등으로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2년 연속 하락세가 예상되나 낙폭은 완화될 전망
 - 한편 주요 업체의 재고 정상화, 인플레이션 완화, 5G 적용 확대, 올해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내년(11억 7,840만 대, 3.4%↑)에는 반등하면서 상승 궤도 진입을 기대
- **(업체별)** 삼성전자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트랜션이 비보를 제치고 5위에 진입할 전망
 -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12.4% 감소한 2억 2,760만 대를 기록하면서 점유율이 소폭 하락($\Delta 1.7\text{p}$)할 것으로 예상되나 1위(20.0%)를 유지하며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
 - 애플(2억 1,650만 대, $\Delta 3.4\%$)은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19.0%)을 확대하며 1위를 바짝 추격할 전망
 - 중국 업체의 경우 샤오미(12.4%)·오포(7.8%)가 각각 3위·4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트랜션(7.7%)의 출하량이 두 자릿수 증가하면서 비보(7.5%)를 추월하고 5위에 올라설 전망
 - ※ 중국 주요 스마트폰 업체의 '23년 출하량 및 증감률 전망치(단위 : 백만 대) : (샤오미) 141.8, $\Delta 6.8\%$, (오포) 89.3 $\Delta 13.6\%$, (트랜션) 88.3, 21.6%↑, (비보) 85.3, $\Delta 15.0\%$
 - 한편 내년에는 오포·비보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트랜션이 성장을 지속하면서 오포마저 제치고 4위까지 상승하는 등 중국 업체의 순위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
 - ※ '23.3분기 동남아에서 테크노(148%↑)·인피닉스(42%↑)·아이텔(17%↑) 등 자사 브랜드가 분기 최고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트랜션이 중저가폰을 중심으로 신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존재감을 확대(카운터포인트, '23.11월)

그림 1-6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및 업체별 점유율 추이 전망



자료 : TechInsights, 2023.12.

□ 애플, 대내외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아이폰 생산 기지의 중국 → 인도 이전 가속화

-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애국 소비,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 등으로 애플은 脫중국을 꾀하면서 유망시장으로 부상하는 인도 투자를 확대
 - 애플은 올해 전체 아이폰 출하량 중 약 95%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등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최대의 아이폰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조선일보, '23.12.11일, 원소스 카운터포인트)
 - 다만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중국 내 애국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 및 국가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사업 특성상 공급망 다각화 필요성까지 대두되면서 애플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
 - ※ '22.10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중국 내 애플의 최대 생산 기지인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이탈하면서 애플은 생산에 중대한 차질을 경험
 - 인도는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자국 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낮은 스마트폰 보급률, 5G 및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증가, 글로벌 2위로 꼽히는 스마트폰 시장 규모 등 제조 및 판매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해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애플은 對인도 투자를 확대
 - ※ 인도의 중국 대비 취약한 인프라에 따른 물류 비용 증가, 제한이 많은 노동 규정, 강력한 노조 등은 생산량의 유연성 확보가 중요한 애플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脫중국 및 공급망 다각화를 최우선으로 판단
 - 이에 따라 '25년까지 매년 전체 아이폰 생산량의 약 25% 수준인 5,000만 대 이상의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이며, 이후 1,000만 대 이상을 추가로 생산해 인도 내 아이폰 생산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보할 계획
 - ※ 인도의 아이폰 생산 비중(금액기준) : ('21년) 1% → ('22년) 7% (KIEP, '23.4.17.)
 - 애플의 인도 투자 가속화로 폭스콘·페가트론 등 주요 OEM 업체가 인도 내 공장 건설 및 생산량 확대를 추진 중이며, 인도 업체 최초로 타타그룹이 아이폰을 생산하는 등 인도가 생산거점으로 발돋움
 - ※ 한편 애플은 아이폰 외 아이패드·맥북·애플워치 등 모든 제품의 생산능력을 중국에서 베트남 등으로 이전할 계획

표 1-7 애플 OEM 업체의 인도 투자 현황

업 체	내 용
폭스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내 아이폰 생산 관련 투자를 잇따라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3월 7억 달러 규모의 아이폰 부품 생산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 - 8월에는 5억 달러를 투자해 2개의 부품 공장을 설립하고 1곳에서 아이폰용 부품을 생산할 계획을 발표 - 12월에는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의 IT기기 추가 생산을 위해 기존(11월)에 발표한 16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에 최소 1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총 투자액이 약 27억 달러에 달할 전망 - 한편 카르나타카주는 야근 제한 완화 조치를 포함한 노동법 개정안을 채택함에 따라 3개월간 허용되는 추가 근로 시간이 기존 75시간에서 145시간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12시간 순환 근무제와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로를 허용
페가트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첸나이주 공장에서 구형 아이폰 모델을 중심으로 생산해왔으나 최근에는 아이폰15 시리즈 등 최신 제품 생산을 시작했으며, 아이폰 조립 공장의 추가 건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

업 체	내 용
타타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플 협력사인 대만 위스트론의 인도 카르나타카주 공장을 1억 2,500만 달러에 인수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며, '23.11월 거래를 마무리해 인도 업체 최초로 아이폰을 생산할 예정 ※ 해당 공장은 위스트론의 인도 소재 공장 3곳 중 중 최대 크기의 공장으로서 주로 아이폰을 조립 • 인도 타밀나두주에 '25년 내 가동을 목표로 인도 최대 규모의 아이폰 조립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23.3분기 중국 폴더블폰 시장, 고성장을 달성한 가운데 업체들의 입지 경쟁이 치열

- '23.3분기 중국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점유율 2위에 자리매김. 한편 아너·오포·비보 등 후발주자들의 순위 다툼이 격화(카운터포인트, '23.11월)
- '23.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으나 아너·오포·비보 등 자국 업체들의 폴더블 제품 출시 확대 등으로 폴더블폰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06%↑) 성장하는 등 오름세
 - ※ '23년 분기별 중국 폴더블폰 시장 성장률(카운터포인트, '23.7·10·11월) : (1Q) 117%↑ → (2Q) 64%↑ → (3Q) 106%↑
 - ※ 스마트폰 성능의 상향 평준화 등으로 신성장 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주요 업체들이 새로운 품팩터에 주목하면서 폴더블폰 시장이 성장. 또한 내구성 강화, 디자인 개선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업체별 점유율은 메이트X3·X5, 포켓S 등 '23.하반기 신제품 판매 강세 등으로 화웨이가 34%를 차지하며 1위를 수성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15%p) 하락하면서 입지가 위축
- 삼성전자는 중국의 애국 소비 등으로 중국 전체 스마트폰 시장 내 입지가 약 1%에 불과하지만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2위(21%)에 굳건히 자리매김.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소폭(△2%p) 하락
- 한편 아너(16%)·오포(11%)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점유율을 확대한 가운데 비보(9%)도 소폭 증가를 달성하는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폴더블폰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
 - ※ 다만 샤오미는 ('22.3분기) 10% → ('23.3분기) 8%로 점유율이 감소하면서 순위도 3위 → 6위로 크게 하락
- 참고로 '23.3분기 중국 폴더블폰 시장 내 최다 판매는 아너 '매직V2'가 차지했으며, 뒤이어 화웨이 '메이트X3', '포켓S', '메이트X5', 샤오미 '믹스 폴드3'가 자리매김

그림 1-7 중국 폴더블폰 시장 업체별 및 모델별 점유율



자료 : ZDNET, 2023.11.24. (원소스 카운터포인트)

2) 수출 동향

□ '23.11월 휴대폰 수출, 완제품 및 부분품이 반등하면서 올해 최고 실적을 달성

- (품목별) 업황이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완제품·부분품이 동반 성장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2.2% 증가한 15.5억 달러로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
 - 각국의 5G 채택 증가, 연말 할인 행사, 프리미엄 제품 선호도 증가, 주요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등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면서 완제품 및 부분품이 동반 반등. 이에 따라 10개월 만에 두 자릿수로 상승 전환하며 올해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선전
 - (휴대폰 완제품 : 3.3억 달러, 16.0%↑) 국내 업체의 상반기 플래그십 및 하반기 폴더블 제품 등 프리미엄폰 판매 강세에 따른 수출 수량 및 단가 상승 등으로 호조 달성
 - ※ '23.11월 완제품 수출 수량 및 단가 : (수량) 68.4만 대, 9.8%↑, (단가) 476.0달러, 5.6%↑
 - (휴대폰 부분품 : 12.2억 달러, 11.3%↑) 글로벌 업체들의 신제품 출시 등에 따라 카메라 모듈·커버(프레임, 힌지 등)·PCB 등 주요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
 - ※ 주요 생산 거점별 부분품 수출 : 중국(홍콩 포함, 9.5억 달러, 11.5%↑), 베트남(1.3억 달러, 2.9%↑), 인도(0.1억 달러, 177.9%↑)
- (지역별) 중국(홍콩 포함)·미국·베트남 등은 호조를 보인 반면 EU 등은 부진
 - 중국(홍콩 포함, 9.7억 달러, 13.1%↑)은 완제품(291.5%↑)이 고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카메라 모듈·커버(프레임, 힌지 등) 등 부분품(11.5%↑)도 반등하면서 두 자릿수 성장
 - 미국(1.4억 달러, 145.4%↑)은 부분품(△18.9%)이 감소한 반면 국내 주요 업체의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 등에 따른 완제품(335.8%↑) 고성장세로 6개월 연속 우상향 지속
 - EU(1.4억 달러, △21.6%)는 부분품(42.6%↑) 오름세에도 불구하고 역내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제품 교체 수요 감소 등으로 완제품(△26.0%) 부진이 지속되면서 10개월 연속 하락
 - 베트남(1.3억 달러, 3.3%↑)은 완제품(24.0%↑)과 부분품(2.9%↑)이 동반 성장하면서 3개월 연속 오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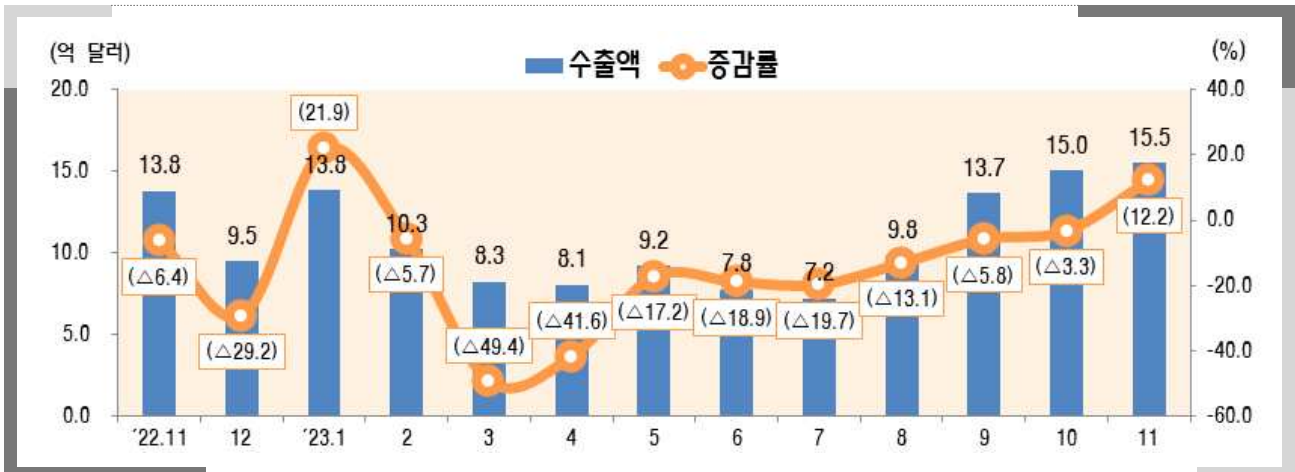
표 1-8 |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11	12	'23.1	2	3	4	5	6	7	8	9	10	11
휴대 단말기	13.8 (△6.4)	9.5 (△29.2)	13.8 (21.9)	10.3 (△5.7)	8.3 (△49.4)	8.1 (△41.6)	9.2 (△17.2)	7.8 (△18.9)	7.2 (△19.7)	9.8 (△13.1)	13.7 (△5.8)	15.0 (△3.3)	15.5 (12.2)
완제품	2.8 (△34.5)	0.9 (△76.6)	3.2 (152.2)	1.7 (△36.2)	2.6 (△66.4)	3.3 (△42.3)	3.2 (△24.2)	2.4 (△46.9)	2.3 (△22.7)	1.7 (△34.7)	2.7 (△33.4)	2.6 (△10.1)	3.3 (16.0)
부분품	11.0 (5.1)	8.6 (△11.2)	10.7 (5.7)	8.5 (4.5)	5.7 (△34.4)	4.8 (△41.2)	6.0 (△12.9)	5.3 (6.7)	4.9 (△18.3)	8.2 (△6.9)	11.0 (5.0)	12.5 (△1.8)	12.2 (11.3)

자료 : IITP, KTSPI

그림 1-8 | 휴대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9 | 휴대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중국(홍콩)	74.5	39.8	50.7	중국(홍콩)	9.7	13.1	62.6	64.1	-6.6	54.0
2	베트남	18.8	-35.9	12.8	미국	1.4	145.4	9.0	15.4	51.5	13.0
3	미국	10.5	-57.1	7.2	베트남	1.3	3.3	8.5	14.2	-17.8	12.0
4	독일	5.8	21.2	3.9	독일	0.6	123.6	4.2	4.0	-29.9	3.4
5	영국	5.3	1.0	3.6	필리핀	0.5	39.1	3.3	3.4	177.0	2.8
6	오스트리아	5.1	170.3	3.5	영국	0.4	19.9	2.3	2.9	-44.1	2.5
7	인도	3.8	13.2	2.6	프랑스	0.4	97.1	2.3	1.4	-27.4	1.2
8	캐나다	2.8	77.7	1.9	네덜란드	0.2	-2.9	1.3	1.5	-45.4	1.3
9	네덜란드	2.8	108.8	1.9	인도	0.1	135.3	1.0	1.4	-62.5	1.2
10	일본	2.3	2.9	1.6	캐나다	0.1	-65.2	0.9	0.6	-77.1	0.5

자료 : IITP, KT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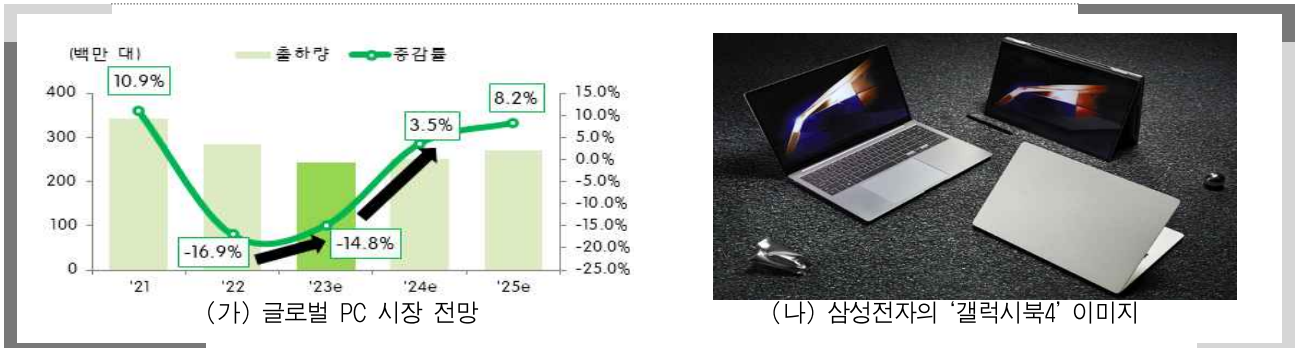


1) 수출 환경

□ 올해 역성장을 끝으로 '24년은 AI PC 혼풍, 소비력 회복 등으로 성장 반열에 진입할 전망

- (시장 전망) '23년 PC 시장은 소비자들의 PC 구매력 축소 등으로 부진하겠으나 '24년엔 수요 환경 개선 등으로 반등 전망
 - 올해 PC 시장(2억 4,200만 대, $\Delta 14.8\%$)은 세트업체의 재고 부담 완화에 따른 축적 수요 증가 등으로 분기별 낙폭은 축소되고 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고착화, 금리 인상 누적효과 등에 따라 2년 연속 하락세는 불가피할 전망
 - ※ 분기별 PC 시장 성장률(Gartner, '23.11월) : ('22.4Q) $\Delta 30.8\%$, ('23.1Q) $\Delta 29.8\%$, (2Q) $\Delta 16.7\%$, (3Q) $\Delta 9.8\%$
 - '24년(2억 5,041만 대, $3.5\% \uparrow$)에도 세계 경제 불안 요소들이 여전하나 비즈니스용 윈도 11 업데이트, 인공지능 노트북의 대거 출시 등 긍정적 요소에 힘입어 비즈니스용(1억 6,371만 대, $5.2\% \uparrow$), 소비자용(8,670만 대, $0.4\% \uparrow$)의 수요 회복 등으로 시장이 점차 안정화될 전망
 - ※ AMD는 인공지능 처리 성능을 강화하여 전작 대비 최대 1.6배가량 AI 기능이 향상된 노트북용 CPU '라이젠 8040 시리즈'를 공개('23.12.7일). 해당 제품은 '24.1분기부터 출하돼 주요 PC 제조업체(Acer, ASUS, Dell, HP 등)들의 '24년 신제품에 장착될 예정
- (업체 동향) 삼성전자, 내년 AI PC 대전 개막에 앞서 AI 성능을 강화한 노트북을 공개
 - 인텔의 차세대 CPU인 코어 울트라(개발명 '메테오레이크')와 AI 연산에 특화된 NPU(신경망처리 장치)를 탑재한 '갤럭시북4 시리즈' 3종('16인치 울트라', '16인치 프로 360', '14·16인치 프로')을 공개('23.12.15일). AI 처리 성능, 전력 효율성 등이 크게 강화된 점이 특징
 - ※ 12.14일 美 뉴욕에서 개최된 'AI 에브리웨어' 행사에서 인텔의 '코어 울트라' 출시 공표에 발맞춰 삼성전자도 신제품을 공개
 - 해당 제품은 '24.1.2일 국내에 우선 출시될 예정이며 시리즈 최초로 3개 모델 모두에 터치 디스플레이(3K 수준인 $2,880 \times 1,880$ 화소, 최대 120Hz 주사율)가 적용된 점도 눈길
 - ※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통상 연초 2월에 진행됐던 신제품 출시 일정을 한 달가량 앞당긴 이유로 연초 시장 성수기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
 - 또한 전 모델에 내장 그래픽 '인텔 아크'를 탑재하여 게임·콘텐츠 제작 시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고 울트라 라인업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70·4050' 외장 그래픽을 탑재해 고사양 게임 및 그래픽 작업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성능 향상에도 총력
 -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경쟁 업체들의 AI 노트북 출시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24년은 AI 노트북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그림 1-9 | 글로벌 PC 시장 전망 및 삼성전자의 ‘갤럭시북4 시리즈’ 이미지



자료 : Gartner, 2023.12. / 언론 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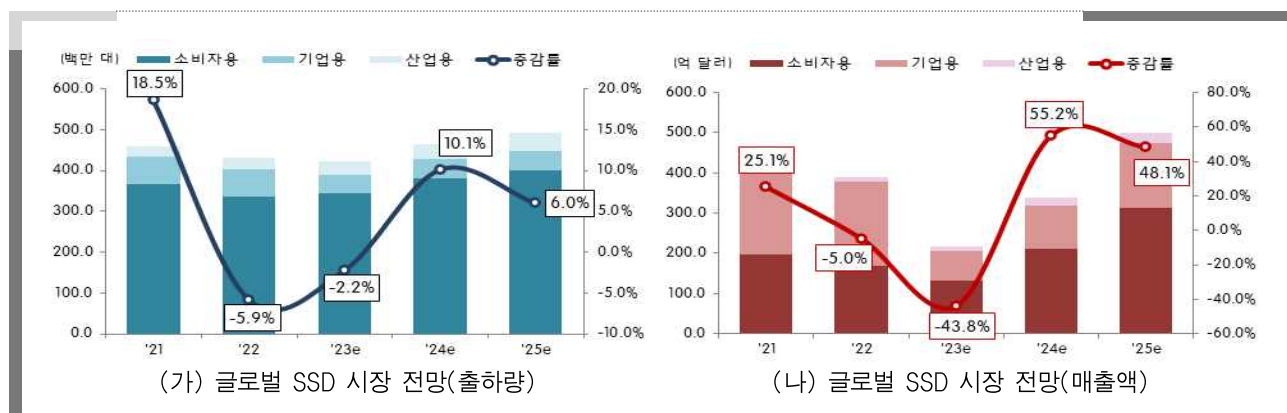
□ (태블릿PC) 올해 큰 폭의 하락에 이어 내년에도 수요 정체 등으로 역성장 기조 지속 전망

- (시장 전망) '23년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자 지출이 감소하면서 3년 연속 하락할 전망
 - 올해 태블릿PC 시장(1억 3,434만 대, △11.2%)은 전 세계 고인플레이션, 라·우 전쟁 장기화, 코로나19 특수 소멸, 노트북·스마트폰으로의 수요 이동 등으로 종전 전망 대비 하락폭(△2.1%p)이 확대되면서 3년 연속 내림세가 지속될 전망(Gartner, '23.12월)
 - 내년(1억 3,334만 대, △0.7%)도 애플의 첫 OLED 신제품 출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딘 수요 회복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
- (업체 동향) 주요 태블릿PC 업체들은 판매 라인업 개편 및 신제품 출시 등을 예고
 - (애플) 지속적인 매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현재 ‘프로, 에어, 10세대, 9세대, 미니’ 등으로 출시되고 있는 복잡한 아이패드의 라인업을 간단하게 전면 개편할 것이라 발표
 - ※ ‘프로’는 최상위 모델로, ‘에어’는 중간급, 그 외는 하위 모델로 구분지어 제품별 특징을 명확히 할 예정
 - 또한 이르면 '24.3월 OLED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와 M2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에어(2가지 크기로 구성) 신제품도 출시할 전망. 태블릿 시장에서 실적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관측
 - 한편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 극복, 중국 생산 의존도 축소 등을 위해 아이패드 생산 거점을 중국 → 베트남으로 이전하며 공급망 다각화 전략도 추진 중인 것으로 관측
 - ※ 애플의 아이패드 위탁 업체인 中 BYD는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1억 4,400만 달러를 투입해 아이패드 생산을 확장한다 발표('23.8월). JP모건에 따르면 '25년까지 아이패드의 20%가 베트남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 거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한 기업용 태블릿PC ‘갤럭시탭 액티브’ 신제품이 '24.1분기 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23.12.8일 태블릿PC ‘SM-306N’이 국내 전파인증을 통과)되면서 이목이 집중
 - 해당 제품은 운송물류건설 등 현장 업무가 많은 기업 고객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특히 내구성과 휴대성이 높은 점이 특징. 이외에도 터치 감도 조절을 통해 장갑을 벗지 않고도 제품 사용 등이 가능

□ (SSD) SSD의 기반이 되는 낸드 가격 안정화에 따라 내년 시장은 회복 반등할 전망

- (시장 전망) '23년은 SSD 가격 하락 여파 등으로 출하량·매출액이 동반 감소하겠으나 '24년은 가격 및 수요 회복 등으로 상승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Gartner, '23.10월)
 - 올해는 글로벌 IT 경기 둔화, 중국 수요 감소, 낸드 가격 급락 등 좋지 않은 상황 등으로 출하량(4억 2,260만 대, $\Delta 2.2\%$), 매출액(218.0억 달러, $\Delta 43.8\%$)이 모두 하락하며 2년 연속 역성장 전망
 - 그러나 낸드 공급업체의 강력한 가동률 인하 정책 등으로 '23.4분기부터 SSD 가격 회복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생성형 AI 등의 발전으로 글로벌 IT 업체들의 SSD 구매도 증가 추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환경이 개선되는 흐름
 - 게다가 내년 PC 시장의 수요 회복 기조와 더불어 생성형 AI, IoT, 자동차의 전장화 등에 따른 데이터 사용량 폭증 등으로 '24년 SSD 출하량(4억 6,533만 대, $10.1\% \uparrow$), 매출액(338.3억 달러, $55.2\% \uparrow$)은 동반 반등하며 성장 반열에 다시 올라설 것으로 관측
 - * '24년 소비자용 출하량(3억 8,167만 대, $10.5\% \uparrow$)은 시장 여건 개선 등에 따라 성장 폭이 확대되고 매출액(210.6억 달러, $60.8\% \uparrow$)은 상승 반등할 것으로 관측. 기업용도 출하량(4,514만 대, $3.1\% \uparrow$) 반등과 더불어 매출액(108.3억 달러, $44.4\% \uparrow$)이 크게 성장 전환할 전망
- 내년 시장 여건 개선 기대 속, 삼성전자는 고용량 휴대용 SSD 신제품을 공개
 - (삼성전자) '15년 1TB(테라바이트) 제품을 선보인 지 8년 만에 용량을 8배 확대한 8TB 포터블 SSD 신제품 'T5 이보(EVO)'를 출시. 포터블 SSD 출시 업계 중 최대 용량으로 주목(11.15일)
 - * 8TB는 1,200만 화소 사진 216만 장 또는 50GB(기가바이트) 크기의 고화질 영화 160편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
 - 또한 해당 제품은 외장 HDD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3.8배 빠르며 초당 최대 460MB의 연속 읽기·쓰기 성능을 지원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제고. 이외에도 내구성 등의 우수함을 강조하며 소비자용 수요를 겨냥한 고용량 고성능 포터블 신제품을 기반으로 시장 선두 입지를 강화하는 모양새

그림 1-10 | 글로벌 SSD 시장 전망(출하량 및 매출액)



자료 : Gartner, 2023.10.

2) 수출 동향

□ '23.11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7% 감소

- **(품목별)** SSD 등을 비롯한 주변기기 수출 부진 장기화로 17개월 연속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낙폭은 2개월 연속 개선되는 흐름
 - (컴퓨터 : 1.1억 달러, 41.1%↑) 데스크톱PC(0.1억 달러, 25.9%↑), 중대형 컴퓨터(0.2억 달러, 29.0%↑) 등의 성장과 부품품 수출(0.6억 달러, 54.1%↑) 급증 등으로 5개월 연속 견조세 지속
 - (주변기기 : 6.4억 달러, △28.6%) '22.7월 이후 하락 곡선을 지속해왔으나 SSD(3.9억 달러, △42.2%)의 감소폭 둔화, 모니터·프린터 등의 호조 등으로 가팔랐던 우하향 기울기가 소폭 완화
- **(지역별)** 베트남·폴란드 등은 상승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미국 등의 주요국 수출은 하락
 - 중국(홍콩 포함, 1.9억 달러, △33.4%)은 컴퓨터(0.3억 달러, 29.1%↑) 등의 성장세는 여전하나 프린터(0.1억 달러, △15.2%), SSD(1.2억 달러, △47.1%) 등의 부진으로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하락
 - 미국(1.8억 달러, △44.3%)은 SSD의 큰 폭 하락이 지속되면서 17개월 연속 감소 중이나 컴퓨터(0.2억 달러, 90.9%↑), 프린터(0.1억 달러, 77.7%↑), 모니터(0.4억 달러, 22.1%↑) 등의 두 자릿수 성장으로 낙폭은 전월 대비 축소
 - 베트남(0.5억 달러, 18.1%↑)은 모니터(0.3억 달러, 9.3%↑)를 중심으로, 폴란드(0.4억 달러, 50.6%↑)는 SSD(0.2억 달러, 46.0%↑)·모니터(0.2억 달러, 33.4%↑) 등의 견조세로 성장 기록

표 1-1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11	12	'23.1	2	3	4	5	6	7	8	9	10	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9.7 (△45.2)	11.7 (△29.5)	6.3 (△58.7)	6.6 (△58.6)	8.5 (△52.5)	5.9 (△66.7)	8.3 (△53.0)	8.7 (△48.7)	8.7 (△28.0)	6.6 (△47.7)	8.0 (△48.0)	7.6 (△26.2)	7.5 (△22.7)
컴퓨터	0.8 (△63.0)	1.1 (△52.6)	0.7 (△24.3)	0.8 (2.7)	0.9 (23.1)	0.7 (△17.4)	0.9 (△6.0)	0.8 (△10.1)	1.0 (12.0)	0.8 (17.7)	0.9 (20.8)	1.0 (46.4)	1.1 (41.1)
부품	0.4 (△77.2)	0.6 (△69.1)	0.5 (△15.6)	0.4 (12.4)	0.5 (23.2)	0.4 (△22.3)	0.4 (△15.7)	0.4 (△25.1)	0.5 (△13.3)	0.5 (29.2)	0.5 (25.1)	0.5 (18.7)	0.6 (54.1)
주변기기	8.9 (△42.7)	10.5 (△25.7)	5.6 (△61.1)	5.8 (△61.7)	7.6 (△55.6)	5.1 (△69.4)	7.4 (△55.6)	7.8 (△50.9)	7.7 (△31.1)	5.7 (△51.6)	7.0 (△51.6)	6.6 (△31.5)	6.4 (△28.6)
보조기억 장치	6.8 (△51.3)	8.1 (△34.3)	3.2 (△73.4)	3.7 (△72.0)	5.4 (△61.9)	2.9 (△79.8)	5.3 (△62.5)	5.3 (△60.4)	5.3 (△39.0)	3.6 (△63.4)	4.7 (△62.0)	4.2 (△42.9)	4.0 (△41.6)
프린터	0.3 (△4.4)	0.4 (△2.7)	0.3 (△30.2)	0.3 (1.8)	0.3 (△24.4)	0.3 (△22.2)	0.3 (△20.6)	0.4 (△4.1)	0.3 (△20.2)	0.3 (△25.6)	0.4 (△6.3)	0.3 (△30.6)	0.4 (21.1)
모니터	1.1 (41.7)	1.2 (35.8)	1.1 (△15.8)	1.2 (21.9)	1.2 (0.4)	1.2 (12.9)	1.2 (7.5)	1.3 (23.0)	1.3 (24.8)	1.2 (26.4)	1.3 (10.5)	1.2 (3.2)	1.2 (7.3)

자료 : IITP, KTSPI



그림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64.0	12.7	37.0	중국(홍콩)	1.9	-33.4	25.4	25.1	-48.0	30.4
2	중국(홍콩)	51.4	-19.6	29.7	미국	1.8	-44.3	24.3	20.5	-65.5	24.8
3	네덜란드	7.2	52.2	4.2	베트남	0.5	18.1	6.1	5.3	35.9	6.5
4	일본	6.8	22.8	4.0	폴란드	0.4	50.6	5.9	3.0	-5.4	3.6
5	대만	4.4	-10.6	2.5	일본	0.3	-24.7	4.2	4.4	-32.8	5.3
6	베트남	4.3	194.9	2.5	콩고민주공화국	0.2	71.2	3.0	0.6	342.4	0.8
7	싱가포르	4.2	-1.5	2.5	체코	0.2	37.8	2.9	1.5	-46.4	1.8
8	멕시코	4.0	-15.4	2.3	멕시코	0.2	27.4	2.8	1.8	-51.8	2.2
9	폴란드	3.4	36.4	2.0	싱가포르	0.2	18.4	2.8	2.1	-46.4	2.5
10	체코	2.9	6.3	1.7	대만	0.2	3.0	2.4	2.5	-41.5	3.0

자료 : IITP, KTSPI

6 이차전지

1) 수출 환경

□ 글로벌 경기 침체 속 시장은 긍정적 흐름 지속·다만 중국 제외 시장 내 경쟁은 격화

- (시장 전망) '23.10월 누적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수요 호조 등으로 상승 곡선을 이어가며 전년 대비 44.4% 늘어난 552GWh를 기록(SNE리서치, '23.12월)
-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가중, 글로벌 경기 악화 등 좋지 않은 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각국 정부의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강화 행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라인업 확대, 테슬라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은 호황 지속
 - ※ 동 누적 기간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BEV+PHEV, 상용차 포함)는 1,099.5만 대로 전년 대비 36.4% 증가. 다만 일각에서는 초기 구매 수요 완결, 경기 불황 지속, 독일 정부의 갑작스러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23.12월) 등으로 향후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
- (글로벌) '23.10월 누적 기준 주요 전기차용 이차전지 업체들은 모두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中 CATL(점유율 36.9%), BYD(15.8%)가 시장 절반 이상을 차지(52.7%)하며 선두권을 지속
 - ※ 국내 3사(23.4%)는 전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1.1%p 하락하였으나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순위를 유지
-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업체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3위(13.8%)에 랭크되었고 이어 파나소닉(6.8%), SK On(5.1%), CALB(4.7%), 삼성SDI(4.6%) 순으로 각각 4~7위를 차지
- (중국 제외) 동 기간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54.5GWh로 전년 대비 52.8% 증가하였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47.0% 성장한 70.5GWh로 단독 1위(27.7%)를 차지
- CATL(70.3GWh, 94.3%↑)은 글로벌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1위 국내 업체를 바짝 추격(점유율 27.6%). 中 제외한 글로벌 시장 내 한·중 간 선두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

그림 1-12 |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및 업체별 규모



자료 : SNE리서치, 2023.12.

□ 미국, 해외우려기관 세부 규정 발표...이차전지 공급망 내 脫중국 기조 재확인

-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內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잠정 가이드스를 발표('23.12.1일)
 - 美 에너지부는 지난 '23.4.18일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을 시행하였으나 해외우려기관 관련 정의와 해석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 발표를 지연해 이차전지 업계에 혼란을 야기

표 1-12 |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 주요 내용

구분	보조금 지급 요건
핵심광물 (3,750 달러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니켈, 리튬 등 이차전지에 탑재되는 핵심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조달해야 하며 '25년 이후부터는 FEOC에서 추출·제조·재활용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3) 40%, ('24) 50%, ('25) 60%, ('26) 70%, ('27~'29) 80% - 핵심광물은 구성재료(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흑연·고체 전극용 금속 전해질 염 등이 포함
배터리 부품 (3,750 달러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생산되어야 공제 대상에 해당. 다만 '24년 이후부터는 FEOC에서 추출·제조·재활용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 - ('23) 50%, ('24~'25) 60%, ('26) 70%, ('27) 80%, ('28) 90%, ('29) 100% - 배터리 부품은 양극판·음극판·분리막·전해액·배터리 셀·모듈 등이 해당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23.12.1일 마침내 해외우려기관(FEOC)³⁾에 대한 정의와 세부 조건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
 - ※ 가이드스에 따르면 해외우려국은 중국·러시아·이란·북한으로 지정하였고 ① 외국 기업이 해외우려국에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②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되거나 관할 지시를 따르는 경우, ③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④ 해외우려기관이 라이선스나 다른 계약을 통해 핵심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전반적 생산·제조·조립 과정에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을 해외우려기관(FEOC)으로 간주할 것이라 명시(하단 표 참조)
- 해외우려기관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4.1.1일부터, 핵심 광물의 경우 '25.1.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12.4일부터 30일간 FEOC 정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

표 1-13 | 해외우려기관(FEOC) 관련 세부 규정

구분	세부 규정
해외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정부 • 미국 영주권·시민권 또는 기타 보호를 받는 개인이 아닌 자연인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조직되었거나 외국에 주된 사업장을 둔 협회, 법인, 단체 또는 기타 개인들의 조합 • 미국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상기 3개에 해당하는 해외 기관에 의해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기관
해외 우려국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려국(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 지배·집권 정당(예 : 중국 공산당 등) • 현직·전직 고위정치인
관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기관이 해당국에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해당국에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3) 해외 기관이며 해외 우려국 정부 관할에 속한 경우거나 해외 우려국 정부의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기관으로 정의

소유·통제·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법인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중간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누적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기업 법인이 자회사 법인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한 경우는 자회사와 모회사를 동일 시 - 모기업 법인이 자회사 법인의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50% 미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 간접소유권이 비례적으로 귀속 • 라이선스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하여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소재의 전반적인 생산 과정(추출·처리·재활용 또는 제조·조립)에 대해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언론 자료 정리

- FEOC 규제 적용에 따른 국내 이차전지 업체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나 단기적인 전략 조정, 비용 소모 등은 불가피할 전망
 - 국내 이차전지 업체들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 프로젝트로 세액공제 요건을 이미 충족해 영향이 없겠으나 中 AESC(벤츠·BMW 등의 북미용 전기차에 이차전지 공급), EVE 에너지(미국 상용차용 LFP 생산시설 구축) 등은 FEOC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표 1-12 참조)
 - '핵심광물'의 경우에는 국내 소재 업체들의 탈중국 전략에도 현실적인 대책 부재로 인조흑연(對中 수입비중 90~95%) 등 일정 비중의 중국산 광물 사용은 불가피하겠으나 구성재료(양극재·음극재) 생산은 한국(美 FTA 체결국)에서 진행돼 공제 대상으로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전망
 - 이에 따라 중국 업체들의 침투가 제한되면서 북미 내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FEOC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확실한 대응 전략, 투자 추진 등이 활발해질 전망
 - 다만 최근 LG화학과 화유그룹의 협력 관계 구축, SK On·에코프로·거린메이(GEM)의 3자 합작법인 설립 등 한·중 협력 강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었으나, 계약 당시 FEOC 발표에 대비해 지분율 조정(25% 미만) 등 사전 합의를 진행하여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란 의견이 다수
 - ※ 중국 지분이 25% 이상일 경우 해외우려기관에 해당돼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상당수의 韓 업체는 중국 업체와 지분율 조정을 사전 합의. 양측은 협의를 통해 가이던스 발표대로 지분율 조정을 시행할 예정. 다만 韓 업체들은 지분 전량 일부 인수 등을 위해 대규모 비용 소모는 불가피할 전망
 - 한편 의견수렴 기간 내에서 FEOC 초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예의주치가 필요

표 1-14 | 국내 양극재 업체와 중국 업체들 간 합작법인 설립 현황

한국	중국	한국 지분율	중국 지분율	생산 품목	지역	투자 내용
LG화학	화유 코발트	51%	49%	양극재	구미	• 5,000억 투자, 6만 톤, '25년 준공
		미정	미정	전구체	새만금 (군산)	• 1.2조 투자, 10만 톤, '28년 준공
포스코 퓨처엠	CNGR	20%	80%	전구체	포항	• 전구체 11만 톤, '26년 준공
	화유 코발트	미정	미정	니켈/전구체	포항	• 1.2조 투자, '27년 준공
포스코 홀딩스	CNGR	60%	40%	니켈	포항	• 황산니켈 5만 톤, '26년 준공



포스코 홀딩스 + GS 에너지	화유 코발트	65% (포스코 51%, GS 49%)	35%	리사이클	광양	• 1,200억 투자, BP(Black Powder) 1.2만 톤, '22년 준공완료
SK On + 에코프로머티	GEM	51%	49%	전구체	새만금 (군산)	• 1.2조 투자, 5만 톤, '24년 준공
엘앤에프	시노리튬	미정	미정	수산화 리튬	대구	• '25년 준공 목표

자료 : 대신증권, 2023.12.4. / 언론 자료 정리

2) 수출 동향

□ '23.11월 축전기 수출은 완만한 회복 끝에 5개월 만에 상승 반전

- **(품목별)** 부분품 등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ESS용 수요 급증 등에 힘입어 축전기 수출(9.0억 달러, 23.4%↑)은 반등
 - (축전기 : 8.6억 달러, 28.3%↑) 북미·EU 주요 시장의 전기차 판매 호조에 따른 전기차용(1.8억 달러, △9.1%) 등의 낙폭 둔화(전월 대비 9.7%p↑)와 더불어 에너지저장장치용(3.4억 달러, 91.2%↑),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 축전기(납축전기, 1.8억 달러, 21.4%↑)의 성장이 수출 증가를 견인
 - (부분품 : 0.4억 달러, △35.7%) 중국(홍콩 포함)·미국·폴란드 등의 부진과 헝가리(0.1억 달러, △18.5%)의 반락 등으로 하락 폭이 전월 대비 확대되면서 5개월 연속 감소세
- **(지역별)** 독일·폴란드 등은 감소한 반면 미국·중국(홍콩 포함) 등의 호조로 우상향 기록
 - 미국(5.1억 달러, 46.8%↑)은 전기차용(1.1억 달러, △30.0%) 등은 하락하였으나 ESS용(2.9억 달러, 223.5%↑) 등의 고성장으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하며 5개월 만에 반등
 - 중국(홍콩 포함, 0.5억 달러, 21.0%↑)은 축전기(0.4억 달러, 66.0%↑) 수요 회복 등으로 5개월 만에 성장 전환하며 수출 상위국 2위로 재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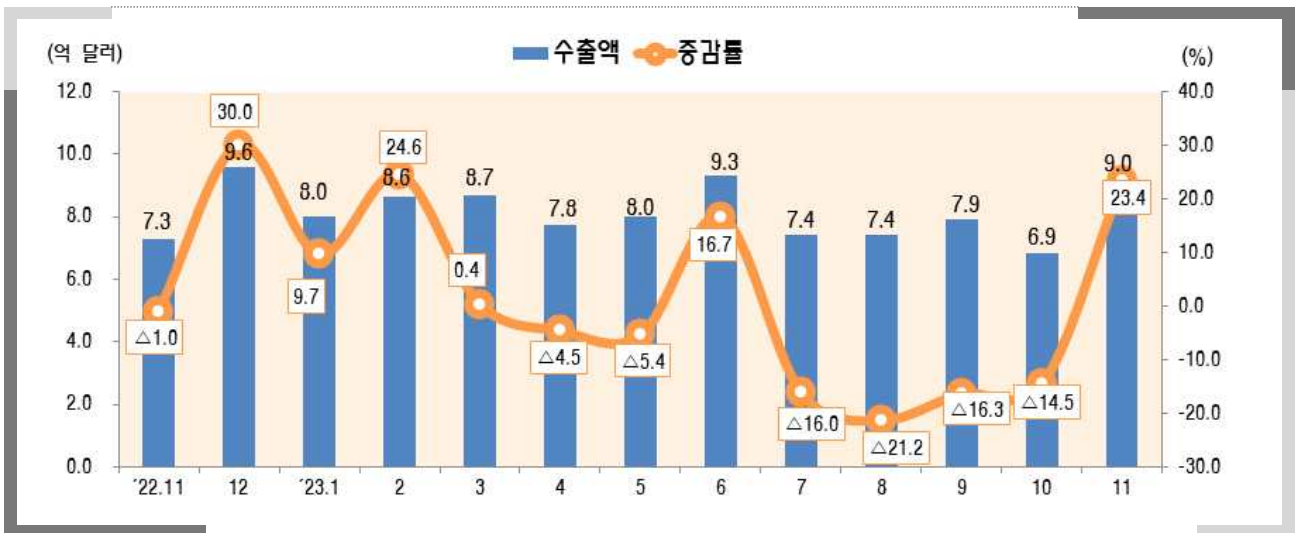
표 1-15 축전기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11	12	'23.1	2	3	4	5	6	7	8	9	10	11
축전기	7.3 (△1.0)	9.6 (30.0)	8.0 (9.7)	8.6 (24.6)	8.7 (0.4)	7.8 (△4.5)	8.0 (△5.4)	9.3 (16.7)	7.4 (△16.0)	7.4 (△21.2)	7.9 (△16.3)	6.9 (△14.5)	9.0 (23.4)
축전기	6.7 (△1.3)	8.9 (32.4)	7.5 (13.8)	8.1 (28.9)	8.1 (1.9)	7.2 (△3.4)	7.4 (△4.7)	8.7 (18.2)	6.8 (△17.0)	6.8 (△22.8)	7.3 (△17.0)	6.4 (△14.3)	8.6 (28.3)
부분품	0.6 (1.5)	0.6 (△0.2)	0.5 (△25.6)	0.5 (△20.2)	0.6 (△14.4)	0.5 (△18.3)	0.6 (△12.1)	0.6 (1.6)	0.6 (△4.7)	0.6 (△1.8)	0.6 (△7.1)	0.4 (△17.3)	0.4 (△35.7)

자료 : IITP, KTSPI

그림 1-13 축전지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1-16 축전지 수출 상위 10대 국가

(단위 : 억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2년 연간				2023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순위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국가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1	미국	41.1	50.0	41.1	미국	5.1	46.8	57.3	42.7	17.1	47.9
2	독일	10.4	5.0	10.4	중국(홍콩)	0.5	21.0	6.1	4.6	-27.5	5.1
3	중국(홍콩)	6.8	-33.7	6.8	독일	0.5	-7.0	5.2	6.4	-32.5	7.2
4	일본	4.7	35.0	4.7	일본	0.5	-9.1	5.1	4.7	9.2	5.3
5	베트남	4.6	17.9	4.6	인도	0.2	30.7	2.6	3.0	54.8	3.4
6	폴란드	3.2	-44.4	3.2	베트남	0.2	-30.5	2.2	2.6	-40.8	2.9
7	헝가리	3.1	20.7	3.1	벨기에	0.2	134.9	2.2	2.7	281.5	3.0
8	인도	2.4	353.3	2.4	호주	0.1	48.7	1.3	1.7	-9.4	1.9
9	대만	2.2	190.9	2.2	폴란드	0.1	-35.5	1.2	1.7	-42.9	1.9
10	호주	1.9	-8.3	1.9	프랑스	0.1	131.3	1.0	0.8	-34.0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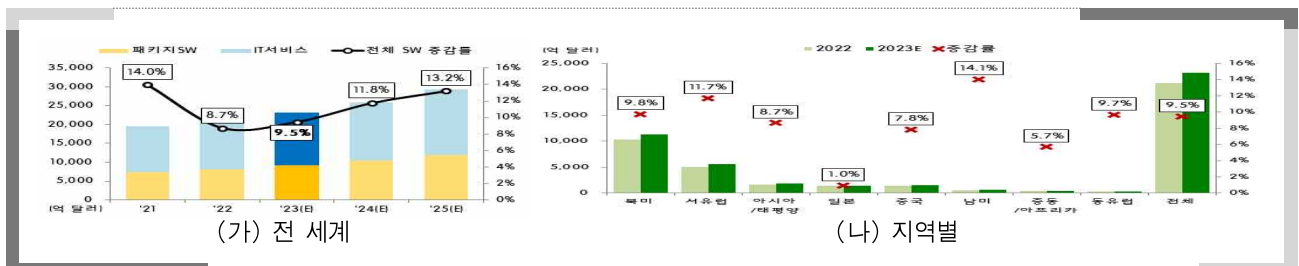
자료 : IITP, KTSPI

1) 수출 환경

□ 글로벌 전역에서 호조를 보이며 올해 및 내년 전 세계 SW 시장은 확장세 예상

- (시장 전망) IT서비스·패키지SW가 선전하면서 '23년 SW 시장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2조 3,173억 달러를 기록 후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Gartner, '23.9월)
 - 생산성 향상 및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데이터 및 AI 활용 증가, 업무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 혁신·체계화, 사이버 보안 확보 등 관련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름세 예상
 - (IT서비스 : 1조 4,010억 달러, 7.3%↑) 퍼블릭 클라우드 최적화 및 생성형 AI 컨설팅 수요 증가 등으로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관리(6.5%↑), 컨설팅(9.4%↑), 인프라 구현 및 관리(4.6%↑), 서비스형 인프라(IaaS, 19.6%↑), 비즈니스 프로세스 서비스(4.6%↑) 등 주요 서비스 호조를 기대
 - ※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빅테크 업체들의 데이터센터 증설 연기 등으로 하드웨어 자원 분야는 소폭 하락(△2.6%) 예상
 - (패키지SW : 9,162억 달러, 12.9%↑)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개선을 위한 투자 등으로 인프라(14.7%↑), 기업 애플리케이션(12.1%↑), 사용자 지향형(10.5%↑) 등 주요 SW가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할 전망
 -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클라우드 등 차세대 기술 발달에 발맞춰 IT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내년(2조 5,897억 달러, 11.8%↑)에도 성장폭을 확대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
 - ※ '24년 SW 시장 부문별 전망(단위 : 억 달러) : (IT서비스) 15,473, 10.4%↑, (패키지SW) 10,424, 13.8%↑
- (지역별) 북미·서유럽·아시아/태평양 등 글로벌 전역에서 성장을 예상
 - 남미(14.1%↑)가 최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9.8%↑)·서유럽(11.7%↑)·아시아/태평양(8.7%↑) 등 전 지역에서 IT서비스 및 패키지SW가 동반 성장하면서 확대될 전망
 - 한편 내년에도 북미·서유럽 등 대부분 지역이 성장폭을 확대하며 우상향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
 - ※ '24년 지역별 SW 시장 성장률 전망 : (북미) 10.6%↑, (서유럽) 12.9%↑, (아시아/태평양) 14.1%↑, (중국) 19.6%↑, (일본) 7.8%↑, (남미) 7.0%, (중동/아프리카) 11.7%↑, (동유럽) 11.0%↑

그림 1-14 전 세계 및 지역별 SW 시장 전망






자료 : Gartner, 2023.9.

□ 국내 IT서비스 업체, 물류 및 생성형 AI 역량을 강화하며 핵심 사업 경쟁력 확대 도모

- 삼성SDS는 국제표준 인증 획득, 디지털 물류 플랫폼 개선 등을 통해 물류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LG CNS, SK C&C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국내 주요 IT서비스 업체들은 주요 서비스 경쟁력 확대에 총력

표 1-17 | 국내 IT서비스 업체 동향

업 체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항공운송협회로부터 CEIV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인증 자격증을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운송 위험물 취급 기준을 상세히 수립해 물류 운영에 반영하는 가운데 특히 리튬 배터리는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세분화된 취급 절차 및 기준을 적용하는 등 물류 운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리튬 배터리는 국제운송 중 화재 위험성이 있어 전문적인 운송 및 관리 프로세스가 필수 -이에 따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CEIV 리튬 배터리(Center of Excellence for Independent Validators Lithium Batteries) 항공운송 인증 자격증을 취득해 항공운송 물류 역량,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 ※CEIV 리튬 배터리 인증은 IATA가 리튬 배터리의 운송 절차, 시설, 장비, 규정 등 약 260개 항목을 평가해 국제적인 운송 전문성과 우수성을 갖춘 업체에 발급하는 글로벌 표준 인증 -한편 본 인증을 통해 검증된 리튬 배터리 항공 운송 절차 및 기준을 디지털 물류 서비스 '첼로스퀘어'에 적용하고 상품화해 물류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로 기업 내부의 유용한 데이터를 찾는 'AI를 활용한 KM(Knowledge Management) 혁신' 서비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를 활용한 KM 혁신'은 사내 임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찾기 위해 채팅 창에 자연어로 질의하면 생성형 AI가 사내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람이 정한 시나리오 기준으로 답변하는 기존 AI 챗봇과 달리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AI가 직접 답변을 생성하도록 고도화 ※MS와 협력을 통해 '애저 오픈AI'를 적용했으며, 포털 등 외부에 공개된 데이터만 학습하는 기존의 챗GPT와 달리 기업 내부 데이터 기반의 답변을 생성하고 내부 데이터에 답변할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외부 지식을 활용한 답변도 제공 -또한 조직 내 전문가들의 지식·경험을 임직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마켓 '브레인즈(BRAINS)'를 구축해 신규 지식 데이터를 축적하고 생성형 AI가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도록 유도 ※브레인즈는 임직원이 다양한 지식을 올리면 전용 코인을 사용해 지식을 구매하는 방식이며, 투표를 통해 유용한 지식을 올린 임직원을 선정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지식펀딩 서비스도 제공 -동 사는 사내에서 AI를 활용한 KM 혁신과 브레인즈를 운영 중이며, 기술 검증 후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드 작성부터 디지털 ITS(IT서비스) 프로젝트 관리까지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코딩 서비스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코딩 서비스는 개발자 맞춤형 AI 코딩, 프로젝트 코딩 표준화 지원, AI 기반 프로젝트 관리 기능 등을 지원해 디지털 ITS 구축 시 개발자의 코드 작성을 도와 개발 생산성을 확대하고, 프로젝트 관리 지원을 통한 프로젝트 품질 향상이 가능 -개발 환경에 AI 코딩 서비스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며 원하는 요구사항을 서술하면 개발자의 개발 수준과 코딩 성향을 분석해 최적화된 코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코드 작성에 도움을 제공하는 등 쉽고 빠르게 개발자 맞춤형 코딩을 지원 -또한 프로젝트별 표준 코드 문서를 등록하면 AI가 이를 학습해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따라 표준에 맞는 코드를 추천 ※AI가 프로젝트 표준 코드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현행화 관리해 최신 표준 코드를 추천하며, 코드 내 주요 정보 필터링, 코드 난독화, 시큐어 코딩 적용 등을 통해 외부 정보 유출을 방지해 보안성도 확보 -한편 프로젝트 표준화 코드와 개발된 코드 비교 분석을 통한 개발 품질 척도 및 코드 버그 여부의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젝트 진척 현황 실시간 보고, 프로젝트 참조 코드 관리,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등 AI 기반 프로젝트 관리 기능도 제공해 디지털 ITS 프로젝트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동 사는 협력 업체를 위한 AI 코딩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향후 개발 환경에 AI를 활용한 코드 추천, 질의응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업무 현장에 필요한 의사소통관리, 산출물 관리 등의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II

트레이드 GPS



II 트레이드 GPS⁴⁾

1 UAE - 가정용 전기기기

□ 부동산 경기 회복, 스마트홈 시장 성장 등에 따라 가전제품 수요도 증가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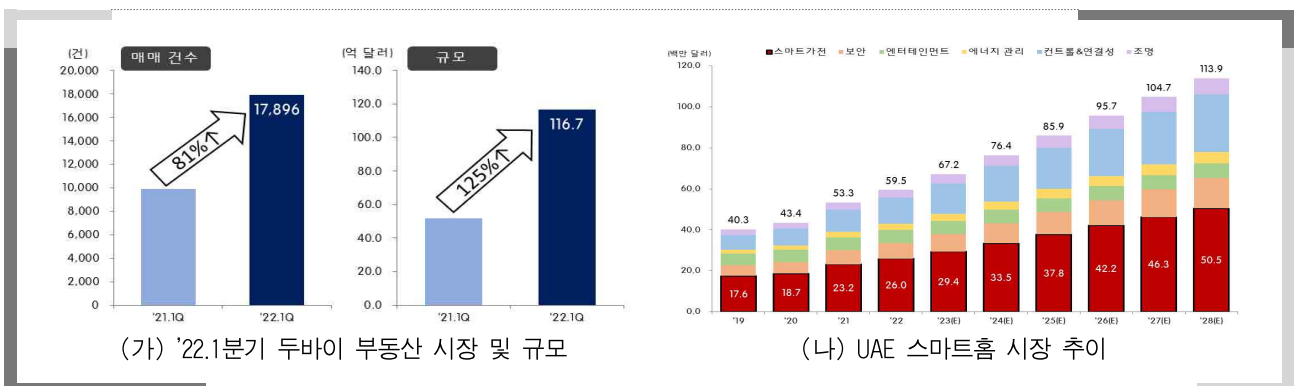
- UAE, 비자 정책 개선, 해외 이주민에 대한 제도 보완 등 인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가전제품 수요를 견인
 - 전체 인구의 약 90%가 외국인으로 구성돼 해외 이주 인구의 유출입에 민감한 UAE는 '19년 코로나19 확산을 시작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공실률 증가 등 부동산 침체 위기를 경험
 -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국제유가 급락, 두바이 엑스포 2020 개최일 연기, UAE 내 외국인 인구 유출 등이 UAE 부동산 시장 위축을 야기
 - 외국인 인구에 의존적인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UAE 정부는 '21.1월 투자자, 특별 재능 보유자, 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시민권 발급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적용
 - '22.9월에는 투자자, 사업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든 비자(5·10년 장기 거주 비자)' 신청 조건을 완화하고 10년 비자로 단일화하는 등 개편을 통해 '골든 레지던스'로 재정의함에 따라 부유층 및 고급 인력 인구 유입을 극대화
 - 또한 주 4.5일 근무제 도입, 알코올 라이선스 취득 없이 주류 구매 및 소비 허용, 비혼 남녀의 동거 허용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외국인 유입과 소비지출 증가를 유도하는 등 해외 이주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 한편 UAE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격적인 백신 접종, 신속한 국경 개방,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해외 인구 및 자본 유입을 이끌고, '21.10월 개최된 두바이 엑스포에 방문객을 유치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22.1분기 두바이 부동산 매매 건수(17,896건) 및 규모(116억 6,946만 달러)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1%, 125% 고성장을 달성하는 등 UAE 부동산 시장이 회복 궤도에 진입하면서 가전제품 수요를 이끌 것으로 기대(KOTRA, '22.6월)
- 국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전환 추진, 청장년층의 높은 신기술 수용력 등에 따라 스마트 홈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스마트 가전제품 수요도 동반 성장할 전망
 - UAE는 인구밀도가 높고 인프라가 발달된 아부다비, 두바이 등을 중심으로 중장기 국가 비전을 통한

4) 트레이드 GPS는 ICT 유망시장, 품목에 대한 동향 및 ICT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

보건·기술·교육·환경·교통 등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개발을 확대

- ※ 이에 따라 IMD 세계경쟁력센터가 발간한 '2021년 스마트시티 지수'에서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전 세계 118개 주요 도시 중 나란히 28위, 29위를 기록하면서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도시 중 최고 순위를 차지
-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거 시설의 스마트화가 필수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함에 따라 정부의 스마트시티 건설 확대 정책과 맞물려 스마트홈 구축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전체 인구 중 젊은 인구의 높은 비중에 따른 개방적인 신기술 수용, 높은 인터넷·스마트폰 보급률 등이 UAE 스마트홈 시장 성장을 견인하면서 ('22년) 5,950만 달러 → ('28년E) 1억 1,390만 달러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 11.4%의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Statista, '23.11월)
- ※ UAE는 적극적 소비계층인 청년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25~54세 비중 61.3%)을 차지하는 등 안정적 소비시장을 보유했으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보급률은 각각 99%, 96%로 높은 수준을 달성(KOTRA, '22.7월 및 12월)
- 스마트홈 구축 확대로 보안, 에너지 관리 등 관련 수요가 동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마트홈 부문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스마트 가전제품 시장 규모는 '22년 2,600만 달러에서 '28년 5,050만 달러까지 연평균(CAGR) 11.7% 성장하는 등 확장세 기대
- ※ '22년 스마트홈 부문별 비중 : (스마트 가전) 43.7%, (컨트롤·연결성) 21.2%, (보안) 12.8%, (엔터테인먼트) 10.6%, (조명) 6.7%, (에너지 관리) 5.2%

그림 2-1 '22.1분기 두바이 부동산 시장 매매 건수·규모 및 UAE 스마트홈 시장 추이



자료 : KOTRA, 2022.6. / Statista, 2023.11.

□ 한-UAE CEPA 체결, 한류 확산 등이 호재로 작용해 국내 가전제품 업체에 수혜 예상

- 한국-UAE의 CEPA 체결이 가속화되면서 한국의 對UAE 수출 주력 품목의 관세 철폐 등이 확실시됨에 따라 가전제품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 '23.10.14일 한국이 UAE와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양국의 교역·투자 확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등 중동 진출 기반을 마련
 -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FTA(자유무역협정)와 유사한 무역협정의 하나로 상품·서비스 교역, 경제, 기술,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교류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
- 이후 법률 검토, 협정문 국문 번역, 경제적 영향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하면서 '24.상반기 정식 서명을

완료하는 등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

- 한-UAE CEPA가 발효되면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 92.8%, UAE 91.2%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할 예정
- 특히 한국이 UAE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인 자동차·자동차 부품,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전기·전자 제품, 원동기, 합성수지 등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對UAE 가전제품 수출 호재로 작용할 전망
 - ※ 자동차·가전제품·의약품·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쇠고기·라면·조미김 등 농축수산물 관세 철폐, 온라인 게임·의료·시청각 등 서비스 시장 개방, 중앙정부기관 개방, 원산지 인정 기준 완화, 에너지·자원·바이오 경제협력 부속서 채택, UAE산 원유 수입관세 철폐 등 광범위한 협력을 진행

표 2-1 한국-UAE CEPA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시장 개방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UAE) 주력 수출품(자동차·친환경차, 부품, 무기류, 가전 등), 수출유망품목(의료기기, 화장품 등), 농축수산물(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라면, 인삼류 등) 등 전체 품목의 92.8%에 적용되는 관세를 철폐 • (UAE→한국) 원유, 석유화학제품 일부, 대추야자 등 전체 품목의 91.2%에 해당하는 관세 철폐 및 나프타(석유화학산업의 주요 원료) 관세를 0.5%→0.25%로 감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는 온라인 게임, 의료서비스, 시청각, 건설 분야 등을 역대 체결한 CEPA 중 최고 수준으로 개방해 한국 게임의 진출 확대, 한국 의료시스템 수출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K-콘텐츠 소비 확산 등을 도모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정부조달협정(GPA)과 유사한 수준으로 합의 ※WTO 정부조달협정은 각국 조달 제도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 타국 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미가입국인 UAE 조달제도의 투명성·공정성이 강화되어 한국 기업들의 UAE 조달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UAE는 자국 연방정부 디지털 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는 27개 연방기관을 모두 개방하고 향후 자국법상 조달 양허 가능 기관이 확대되는 경우 자동으로 한-UAE CEPA를 적용 • 한국은 44개 기관을 개방
협정문(총 19개 장)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산품, 석유화학 제품 등 역외산 재료·부품 활용이 많은 한국 주력 수출품은 완화된 기준 적용 • 육류, 낙농품, 분유, 김 조제품 등 농축수산물은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로 인정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 • 원산지 증명은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가능하도록 만들어 기업의 편의를 도모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가 체결한 CEPA 최초로 국경간 데이터 이전이 허용됨에 따라 UAE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수집한 중요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 • 서버 등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의무를 포함해 기업이 현지에서 새로운 서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 서버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 • 전자적 전송 무관세, 디지털 제품 비차별 대우 의무 등도 포함
지식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영화·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저작인접권 강화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단을 마련한 가운데 UAE가 기체결한 협정 중 역대 최고 수준의 규범을 확보
경제협력(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	
에너지·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에너지·자원 협력 부속서를 채택 • 에너지 부문 상·중·하류,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등 협력을 규정
바이오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최초로 바이오 경제 협력에 관한 별도 부속서를 채택 •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화학,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자원 등 협력 상세 규정을 도입 • 정부 주도의 기업 협력 증진, 공급망 교란 시 긴급 조치 협력, 인적 교류 등을 규정

자료 : 경제외교 활용포털, 2023.10.16.



- UAE 내 한국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확대, 한국 기업의 UAE 진출 등으로 LG전자·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의 가전제품 수요 증가를 예상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제품 구매부터 취미까지 비대면이 일상화된 가운데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면서 한국 드라마·영화 등이 소수의 한류 팬에서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
 - 이에 따라 UAE에서도 K-Pop, K-Drama 등 한국 콘텐츠 소비가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급증하면서 UAE가 주요 소비국으로 부상
 - ※ UAE의 한국 문화콘텐츠 브랜드파워지수(BPI, 브랜드의 정성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 지표)는 68.4점으로 미국·중국·일본 등 26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차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3 해외한류실태조사, '23.3월)
 - 나아가 음식, 제품, 문화 등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되고 한국 기업의 UAE 진출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LG전자·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의 가전제품 수요도 증가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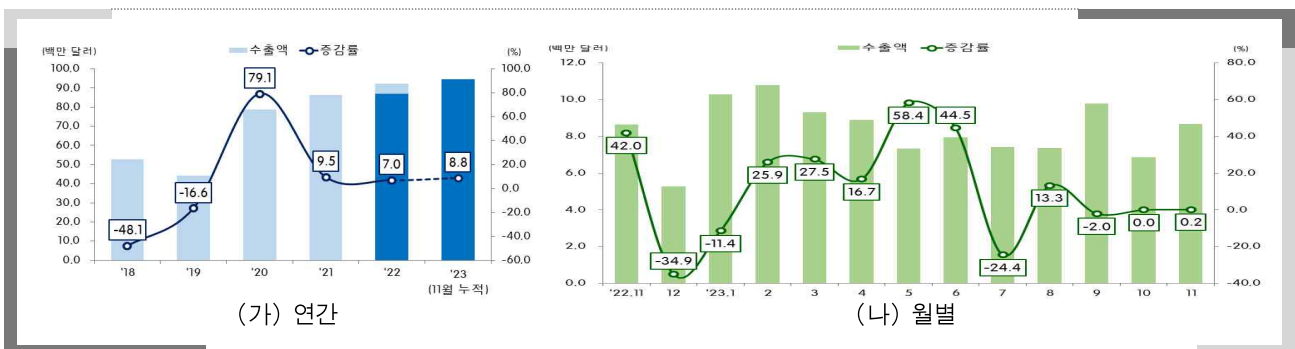
□ (업체 동향) 글로벌 가전 업체, 성장성·수익성을 고루 갖춘 UAE向 투자를 확대

- LG전자, 삼성전자 등 글로벌 가전 업체들은 풍부한 오일머니, 고급 브랜드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으로 유망시장으로 꼽히는 UAE를 겨냥한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시행
 - LG전자, 삼성전자 등 글로벌 가전 업체들은 풍부한 석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수요 증가 등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UAE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팝업스토어 및 프리미엄 제품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현지 마케팅을 강화
 - (LG전자) '23.3월 UAE 두바이에서 지역 밀착형 신제품 발표 행사인 'LG 쇼케이스'를 진행하는 등 '19년 이후 4년만에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제품을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
 - ※ LG전자는 행사에서 F·U·N(최고의 First, 차별화된 Unique, 세상에 없던 New)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공개했으며, '19년 190명 수준이던 참석자는 올해 2배 이상 증가
 - 초프리미엄 라인인 LG 시그니처 2세대를 필두로 터치만으로 색상과 분위기를 바꾸는 무드업 냉장고, 일체형 세탁건조기 위시타워, 액자형 에어컨 아트콜 갤러리, 테이블형 공기청정기 퓨리케어 에어로퍼니처, 빌트인 주방용 가전제품 라인업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소개
 - (삼성전자) '23.5월 UAE 두바이에서 TV 및 가전제품 체험 공간인 프리미엄 맨션을 설치 후 비스포크 냉장고,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을 공개했으며 스마트싱스(가전제품 관리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삼성전자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사용자 경험을 소개
 - ※ 프리미엄 맨션은 8K&스마트싱스 존, 거실, 게이밍 룸, 패밀리 룸, 침실, 스포츠 테라스로 구성됐으며, 8K&스마트싱스 존에서 85형 Neo QLED 8K를 통해 냉장고,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을 제어하는 스마트싱스 시나리오를 공개
 - 또한 하루 5번 기도하는 이슬람 문화를 고려해 스마트싱스에 '기도 모드'를 탑재하고 모래 바람이 불 때 청정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샌드 스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현지화 전략으로 소비를 유도
 - ※ 기도 모드는 기도 시간이 되면 블라인드 작동, 조명 조도 감소, TV 전원 차단 등 기도에 집중 가능한 환경을 조성

□ (수출 동향) 긍정적인 시장 환경으로 對UAE 가정용 전기기기 수출 호조세 기대

- 한-UAE CEPA 추진,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산 제품 선호 증가, 국내 주요 가전 업체들의 현지화 전략 등으로 對UAE 가정용 전기기기 수출은 호조를 이어갈 전망
- (연간) '17년(1억 174만 달러, 14.9%↑) 두 자릿수 성장률로 상승 전환을 기록하면서 1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호조를 달성했으나 '18년(5,282만 달러, △48.1%) 반락 이후 2년 연속 부진
- 다만 '20년(7,885만 달러, 79.1%↑) 고성장을 달성하며 반등 후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23년에도 11월 누적 기준 9,467만 달러를 기록, 8.8% 증가하며 4년 연속 성장 기대
- (월별) '23.2월(1,080만 달러, 25.9%↑) 반등한 후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는 등 선전했으나 '23.7월(743만 달러, △24.4%)을 시작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
- 9월(980만 달러, △2.0%)은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1,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수출액을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며, 10월(686만 달러, 0.0%) 보합 이후 11월(866만 달러, 0.2%↑) 오름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후 수출 증가를 기대

그림 2-2 | 對UAE 가정용 전기기기 연간 및 월별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표 2-2 | 對UAE 가정용 전기기기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2.11	12	'23.1	2	3	4	5	6	7	8	9	10	11
가정용 전기기기	8.6	5.3	10.3	10.8	9.3	8.9	7.4	7.9	7.4	7.4	9.8	6.9	8.7
	(42.0)	(△34.9)	(△11.4)	(25.9)	(27.5)	(16.7)	(58.4)	(44.5)	(△24.4)	(13.3)	(△2.0)	(0.0)	(0.2)





자료 : IITP, KTSPI



□ ICT 기술 발달에 따른 글로벌 디지털 전환 수요로 자동제어기 시장은 성장 전망

- 전 산업 內 AI·IoT 기술 접목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 속, 필수 요소인 자동제어기에 눈길
 - 전 세계적인 기후·식량 위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속 각국 정부는 탄소 저감 및 경제 회복 등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전환에 주목하며 정책적 노력을 전개
 - ※ 디지털 전환은 전체 사회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하며 에너지 관련 전통 산업부문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할 경우 효율 개선 등으로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저감 등이 가능. 또한 여타 산업부문에 적용 시, 융복합 신산업 등의 등장으로 경제 회복력 증진이 기대
 - 게다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의 빠른 기술 발전과 더불어 제조·농업·물류·운송 등 산업 전반적으로 자동화·지능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공장·스마트팜 등의 신산업도 확대되는 추세
 - 이로 인해 글로벌 산업 자동제어 시스템 시장은 '22년 1,500억 달러에 이어 '23~'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전망. 자동제어기 시장도 폭발적인 동반 성장이 기대(Global Market Insights, '23.3월)

표 2-3 주요국들의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국가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 격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위대한 재건(Build Back Better)' 정책을 도입. '22~'26년까지 디지털 인프라 재건 및 저변 확대를 위한 10대 전략 분야에 약 1.3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1월 '제14차 5개년 디지털 경제 발전 계획'에서 '25년까지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를 GDP 비중 내 1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 발표. 각 지방 정부도 지역 간 디지털 경제 발전 불균형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디지털 경제 관련 목표를 발표 - 원안 성은 올해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영업이익을 20% 이상 올릴 것, 장쑤 성은 디지털 경제 규모 5.5조 위안을 돌파할 것, 장시 성은 지역 내 총생산에서 디지털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45% 이상까지 높일 것 등의 목표를 제시 • '23.2.27일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공동으로 중국의 디지털 현대화를 주도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디지털 중국 건설 중한 계획'을 공개하며 '디지털 중국' 실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 - 해당 안은 '25년까지 효율적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자원의 규모와 품질 제고를 통한 디지털 경제 기틀 마련, 공공 업무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고, 디지털 기술 혁신 진전 등의 세부 추진방향과 더불어 '35년까지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총무성은 '2025년 인구 절벽' 시대를 예고하며 추후 경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선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언급('18년). 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날로그 행정 처리에 대한 불편·혼란을 겪으며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본격 인식한 후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추진'을 공표('20.6월) ※ 해당 안은 일본 내 경제단체인 경제동우회가 발표하였으며 동 단체는 코로나19로 타격받은 日 기업의 회생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의 본격적인 가속화가 필수적이라 제언 • 이어 선진국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위해 '21.9.1일 디지털 개혁을 주도할 중앙정부 기관 '디지털청'을 공식 출범하였으며 '22.1월엔 '디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 - 중점계획에는 ① 현상유지가 아닌 산업의 변혁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디지털 전환 촉진, ② 늘어나는 데이터 처리량, 가상화, 기술 환경 등을 고려한 디지털 기반 인프라 확대, ③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환경 정비(사회 전체의 디지털화 및 규제 개혁, 공공조달을 활용한 산업기반 확립, 재생에너지 조달 촉진 등) 등 혁신적 대응책들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집행위는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디지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23.1월 '유럽 디지털 10년(The Digital Decade policy programme)' 정책을 발효하며 4가지 주요 영역에서의 세부 목표('30년까지)를 공동 설정 - ① 디지털 기술(전문가 양성), ② 연결성을 포함한 인프라, ③ 기업의 디지털화, ④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 4개 분야별 구체적 목표를 수립 ※ 전문가 양성인 경우, '30년까지 16~74세 연령 인구의 최소 80%가 기초 디지털 스킬 보유 등을 목표치로 설정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 제반 산업분야에서 전개되는 스마트화, 자동제어기 시장 성장의 토대

- 제조·물류·주거·농업·운송 등의 산업분야에서 AI·IoT 기술이 활용됨에 따라 자동화·지능화·무인화 산업으로 변모, 이에 따라 자동제어기 수요가 함께 증가하며 성장성에 주목
 - (#1 제조) 품질·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정 과정을 자동화한 스마트 공장이 늘어나면서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 개입 없이도 제조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자동제어기 사용이 확대
 - ※ 자동제어기는 실시간 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온도·전류·수질 등 기준을 벗어나는 오류 발견 시 스스로 작동(차단·조정)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불량률 등을 낮추는 핵심 역할
 - (#2 물류)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 등이 활성화되며 전 세계 물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분류·배송 속도, 재고·비용 관리 효율성 등을 극대화하고자 로보틱스, AI, IoT 기술 등이 도입
 - 이로 인해 입고·이송·보관·출고 전 과정을 모두 자동화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 채용이 확대되면서 자동제어기 수요도 증가
 - ※ 아마존이 로봇 도입 수가 2배 증가할 때마다 인건비 축소로 물류비용이 50~60%씩 감소한다 밝히는 등 스마트 물류 도입은 물류 업계의 비용 절감에 효과적. 이에 따라 '22년 306억 달러로 추정되는 글로벌 스마트 물류 시장은 '22~'32년까지 연평균 20.7%로 성장할 전망(Globe Newswire, '22.12월)

○ (참고) 글로벌 유통 업체들의 스마트 물류 도입 동향

- (월마트) '26년까지 미국 전역에 5곳의 차세대 풀필먼트⁵⁾를 개점하여 美 인구의 95%가 1~2일 내 배송완료 서비스를, 80%가 당일 배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실현할 방침.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온라인 킥커머스(즉시배송) 산업의 강자로 발돋움할 계획
- (아마존) '22.4월 사람처럼 걸어 다니며 물건을 옮길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美 어질리티 로보틱스에 투자를 단행한 데 이어 '22.9월 물류 자동화 기술 업체인 벨기에 '클루스터먼스'까지 인수하며 물류 자동화에 광폭 행보

※ 현재 물류 센터 내부 운송, 상품 자동 인식 및 분류 등에 로봇을 도입하여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활발히 구축

〈아마존 로봇 종류〉

로봇종류			
	스패로우(Sparrow)	프로테우스(AMR)	디지털(Digit)
특징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자동 인식·판별하고 픽킹(Picking)하여 상자에 분류	카메라, 센서 등을 활용해 물류 센터 내부 장애물을 탐지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자동 이송	이족보행으로 물건을 집고 들어 올리는 업무, 아직 시험 작동 중

자료 : 언론 자료 정리

5) 물류 전문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려는 업체들의 위탁을 받아 배송과 보관, 포장, 재고관리, 교환·환불 서비스 등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의미



- **(#3 주거)**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달로 냉장고·에어컨·보일러 등의 가전과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홈이 진화
- 스마트 홈은 각종 센서 등을 통해 실시간 온도·습도·밝기, 사용자의 습관·환경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적의 주거 환경 상태로 제어하여 삶의 질, 편리성, 에너지 효율성 등을 제고
 - ※ 사용자가 창문을 열 경우 스마트 홈 플랫폼에 연동되어 있는 난방·에어컨 등 온도 조절 장치 작동이 중단되거나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 조명이 꺼지는 등 스마트 홈 발달과 함께 자동제어기 활용도 확대
- **(#4 농업)** 글로벌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농촌 인구 감소 등 농·축산업의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팜이 부상
 - ※ 글로벌 스마트 팜 시장은 '23년 206.3억 달러 → '26년 341.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BIS Research)
- 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축사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하고 지능형 무인 농기계, 로봇 공학을 통해 생산·관리 과정의 무인화·자동화를 구축하는 등 스마트 팜 시장은 자동제어기 수요처로 유망
 - ※ 스마트 팜용 자동제어기는 최적의 재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용수·영양분·조명·사료의 특정 공급 시간과 배급량 등을 지정하여 작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해 스마트 팜 생산성·효율성 극대화에 중요 요소
- **(#5 운송)** 자동차의 자동화·전장화 흐름과 친환경 기조에 따른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변화,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등과 함께 운전자의 안전성, 편의성 등을 높여주는 자동차向 자동제어기 수요도 성장
 - ※ 자동차 구동 및 충전 시 모터, 배터리, 전류, 온도 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감지 시 제어해 안전성 제고

□ (업체 동향) 디지털 대전환 시대 흐름 속, 신산업 수요 선점을 위한 전략을 구사

- 디지털 생태계 발전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와 함께 글로벌 업체들은 에너지 효율, 전력 사용 안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인수·협력 등을 진행하며 신산업 內 경쟁력 강화에 집중
- **(ABB)** 전동화·자동화 전문 기업인 동 사는 주거 환경 개선, 에너지 효율 증대 등을 목표로 韓 삼성물산과 글로벌 협약을 체결하며 스마트 빌딩 역량 확대에 나서 눈길(*23.11.14일)
- 양사는 통합 빌딩 자동화, 안정적인 전력 분배 및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공동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ABB는 건물 내 모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최대 수요 전력 피크 관리가 가능해 전력 요금 절감에 도움)을 모니터링하는 신규 기능도 추가 제공할 계획
- 뿐만 아니라 UPS(무정전전원장치)를 원격 모니터링하는 자체 서비스 'ABB Ability SmartTracker'를 출시해 눈길(*23.5월). 위험한 전력 이슈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관리자에게 경고를 알리며 관리자는 원격 접속을 통해 언제나 전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전력 자산 관리에 탁월
- '23.6월 독일 스마트 홈 선도 기업인 '이브 시스템즈'를 인수하며 새로운 IoT 기술 표준 '매터6'와 무선 네트워크 기술 '스레드'를 바탕으로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시장 內 자동제어 주도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

6) 표준화된 통신 언어에 대한 필요성 대두로 구글, 아마존,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 홈 서비스 업체들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홈 사물인터넷(IoT) 표준을 의미. 매터를 활용 시 IoT 기기들은 개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호환이 가능

※ 동 사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빌딩 분야의 탄소 저감 목표와 더불어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로 늘어나고 있는 스마트 홈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

- **(슈나이더 일렉트릭)** 상업 시설과 중소기업 데이터 센터 등에 특화된 ‘Easy UPS(무정전전원장치)’ 모듈형 3상 신제품을 출시. 동 제품은 전기 회로의 전압이 끊어지거나 전압의 급증·급감 등을 자동으로 제한하고 50~250kW까지의 용량을 커버하며 전력 보호 및 안정화 기능 등을 수행(’23.4월)
- **(로크웰 오토메이션)** 생성형 AI를 통한 산업 자동화 제품 설계 및 개발 가속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기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 발표(’23.11월)

※ 산업 자동화 전문 업체인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생성형 AI 기술력을 지닌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을 통해 복잡한 산업 제어기기 개발 가속 및 운영 효율 최적화 등을 지원하는 솔루션을 마련할 예정

□ (수출 동향) ’23.11월 자동제어기 수출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

- **(전체)** 경제 회복, 탄소 저감 등을 위한 글로벌 디지털 격변 가속화 속 여러 산업분야의 자동화·지능화 흐름에 따라 자동제어기 수출은 양호한 흐름이 기대
- **(연간)** ’19년(8억 9,263만 달러, △9.4%)엔 부분품(5,715만 달러, 35.1%↑)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의 반락 등으로 감소 전환하였으나 ’20년 회복 흐름 이후 ’21년(8억 8,359만 달러, 11.7%↑)엔 반등
- ’22년(7억 8,180만 달러, △11.5%)엔 글로벌 경기 위축에 의한 수요 부진으로 두 자릿수 하락을 보이며 주춤하였으나 ’23년(11월 누적, 7억 9,150만 달러, 9.6%↑)은 전기차 수요 증가, 산업의 디지털화 가속 등에 힘입어 회복 진입할 것으로 기대
- **(월별)** 성장과 하락을 오가던 자동제어기 수출은 ’23.8월(721만 달러, 25.7%↑) 두 자릿수 반등을 기점으로 고성장세를 지속. 특히 9월(994만 달러, 47.5%↑)은 ’21.1월 이후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였고 11월(961만 달러, 54.6%↑)도 1,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고실적 기록

그림 2-3 연간 및 월별 자동제어기 수출 추이



자료 : IITP, KTSPI



□ 美, IRA 법안의 해외우려기관에 대한 세부 지침을 규정하면서 업계 내 불확실성 해소

-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잠정 가이드스를 발표하면서 업계 내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해소
 - 미국은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Section 30D) 내 해외우려기관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23.12.1일) 후 관보에 게재(12.4일)
 - ※ 에너지부는 FEOC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해석지침 초안을 발표했으며, 재무부는 에너지부의 FEOC 정의를 적용함에 따라 실무에서 발생하는 절차와 지침(안)을 발표
 - FEOC 기업의 합작사 지분을 25%로 제한, 지분율이 25%보다 낮더라도 '유효 통제권'에 대한 해석에 따라 FEOC로 규정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요건을 모두 충족 시 FEOC로 간주
 - ※ FEOC 관련 세부 규정은 이차전지 품목 내 표 1-13을 참조(p25~26)
 - ※ EV 배터리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 중인 중국의 미국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도 향후 기준 강화의 여지를 남겨둔 조치로 평가
 - 또한 '24.1.1일 이후 FEOC의 배터리 부품 사용을, '25.1.1일 이후 FEOC의 핵심광물 사용을 제한하며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FEOC 규정을 미적용
 - 자동차 제조업체가 핵심광물 추적 시스템을 '26년 말까지 구축하는 동안에는 공급선 추적이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최대 2%)의 인증은 제외하며,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 예정
 - ※ FEOC의 배터리 부품·광물의 허용량 최소 기준치인 미소기준을 핵심광물 가치 대비 2% 미만으로 설정
 -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투자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FEOC 해석지침 발표로 국내 배터리 업체의 경영 및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중국 소재 조달 및 중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진행 등에서 FEOC 여부 판단 및 지분율 조정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대비가 필요
 - 또한 FEOC 해석지침 초안에 대해 3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진행되므로 필요시 한국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對중국 강경과 정치권 및 미국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에도 대비
 - ※ 미국 정치권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의 對한국 투자 증가를 비판하고, 중국 CATL의 도움을 받아 배터리를 생산하려는 포드의 프로젝트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우회를 적극 차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존재

표 2-4 IRA 입법 일정

날 짜	내 용
'22.7.27일	• IRA 법안 초안을 공개
8.7일	• 미국 상원 통과
8.12일	• 미국 하원 통과
8.16일	•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 서명 후 즉시 발효
12.20일	• 재무부, 친환경차 세액공제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시기를 '23.3월로 연기

날 짜	내 용
12.29일	•재무부, 'IRA 친환경차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세액공제 백서'를 발표
12.30일	•재무부, 'IRA 상업용 차량 세액공제 가이드'를 발표(리스 판매 차량 포함)
'23.3.31일	•재무부,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드(안)'을 발표 -FEOC를 출처로 하는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포함하는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규정했으나, FEOC 관련 정의 및 해석에 대한 지침 발표가 지연되면서 관련 기업에 혼란을 야기 -한편 보조금 수령을 위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의 규정지역 내 조달비율'을 매년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액공제 혜택의 전제조건이 되는 '해외우려기관(FEOC)'의 해석 여지를 남겨 미국 및 FTA 체결국으로 핵심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이 이동하게끔 IRA 법안을 설계
4.18일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발표
12.1일	•재무부·에너지부, 'IRA 해외우려기관(FEOC) 지침(안)' 발표

자료 : 메리츠증권, 2023.12.3. 및 KITA 통상이슈브리프, 2023.12.4.

□ 美 IRA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가이드' 발표, 韓 배터리·태양광 업체 수혜 기대

-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가이드'를 발표한 가운데 북미 진출을 위해 미국 내 관련 생산시설을 구축한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예상
- '23.12.14일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Section 45X) 집행과 관련해 대상 품목, 적용 상황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잠정 가이드'를 발표
 - ※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으로 '23년부터 '32년까지 적용되며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대상 품목으로 선정
- IRA는 이미 법안에 배터리, 태양광, 풍력,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별 세액공제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해외우려기관(FEOC) 등 다른 사안 대비 쟁점이 적었던 상황
- 다만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가이드' 발표로 미국 내에서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
-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대규모 이차전지·태양광·풍력 등 첨단제품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등 투자를 확대 중인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예상
 - ※ 한국 정부는 IRA 관련 국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美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으며, 한국 기업의 수혜 극대화,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對美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
- 한편 미국 재무부는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가이드'의 내용을 '23.12.15일 관보게재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을 거친 후 '24.2.22일(잠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표 2-5 IRA 세액공제 주요 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기 간
설치 관련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Section 48)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비용의 일정 비율 공제(최대 30%)	•'23년부터 10년간 운영되며, '34년부터 단계적 축소 후 '36년 폐지 ※다만 '32년에 '22년 대비 탄소 배출량이 7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연장
	생산세액공제 (Section 45)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단위 생산당 공제	



구 분	조 항	내 용	기 간
제조 관련 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Section 48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1.1일 이후 건설·증설되는 태양광 제조 시설 초기 투자 비용의 일정 비율을 공제(최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허가를 받은 후 2년 내 건설 완료
	제조세액공제 (Section 48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1.1일 이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 되는 제품 단위당 공제 혜택을 제공 - 배터리 : (셀) 35 \$/kWh, (모듈) 10 \$/kWh - 태양광 : (모듈) 7 ¢/W, (셀) 4 ¢/W, (웨이퍼) 12 \$/m², (폴리실리콘) 3 \$/kg 등 - 풍력 : (블레이드) 2 ¢/W, (나셀) 5 ¢/W, (타워) 3 ¢/W 등 - 핵심광물 : 생산비용(인건비, 전기요금, 저장비용 등)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공제율은 '23~'29년 동안 유효하며, ('30년) 기본 공제율 대비 75% → ('31년) 50% → ('32년) 25% 단계적 축소 후 효력 정지

자료 : KOTRA Global Market Report, 2023.9.1.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3.12.15.

□ 한국-네덜란드, 기술 초격차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반도체 동맹 체결

- 韓 대통령 네덜란드 국민 방문, 반도체 동맹 구축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양국의 반도체 협력 강화 및 기술 우위 확보 등을 기대
 - '61년 네덜란드와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3박 5일간('23.12.11~15일) 국민 방문을 진행
 - '23.12.12일 네덜란드 국왕 및 한국·네덜란드·유럽 주요 반도체 기업·기관 대표들과 전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생산 기업인 네덜란드 ASML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 및 현장 시찰을 진행함에 따라 한국과 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을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마련
 - ※ 이번 ASML 방문은 그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첫 번째 현지 기업 방문. 한편 ASML은 7nm 이하 초미세 공정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
 - 간담회에는 삼성전자(한국, 반도체), SK하이닉스(한국, 반도체), ASML(네덜란드, 노광장비), ASM(네덜란드, 증착장비), Zeiss(독일, 광학시스템), IMEC(벨기에, 반도체 연구기관) 대표가 참석
 - 간담회 직후 한-네덜란드 정부는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 협력 MOU를 체결하고 미래 반도체 인력 공동 양성을 약속했으며, 삼성전자-ASML은 공동 연구개발 센터 설립 MOU를, SK하이닉스-ASML은 EUV용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공동 개발 MOU를 체결
 - ※ MOU를 통해 ASML의 對한국 투자 확대 및 공동 기술·인력 개발 가속화를 예상
 - 특히 삼성전자와 ASML 간 MOU는 1조 원을 투자해 한국에 차세대 EUV를 기반으로 초미세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ASML이 최초로 반도체 제조업체와 해외에 설립하는 연구개발 센터로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
 - 한편 SK하이닉스와 AMSL이 체결한 MOU는 EUV 장비 내부의 광원 흡수 방지용 수소가스를 없애지 않고 재활용하는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친환경에 기여(전력 사용량 20% 및 연간 165억 원의 비용 감축)할 전망

- 또한 대통령은 2nm 이하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투입되는 차세대 EUV 장비가 제조되는 ‘클린룸’도 시찰
 - ※ ASML의 핵심 시설인 클린룸은 지금까지 전체 모습이 공개된 적 없는 현장으로 이번에 최초로 공개
- '23.12.13일에는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가운데 기업·정부·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설, 핵심품목의 공급망 회복력 증진을 위한 정부 간 지식 및 정보 교류 증진 등의 문구를 포함
- 또한 외교 당국 간 연례 ‘경제안보 대화’, 산업 당국 간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위한 ‘반도체 대화’, 외교·산업 장관급이 참여하는 ‘2+2 대화체(격년 개최)’를 신설
 - ※ 반도체 동맹은 양국이 단순한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반도체 공급망 위기 극복 시나리오’를 즉각 발동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관계로 격상한 것을 의미
- 한편 핵심품목 대체 수입처 발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 공유, 유사시 비축 품목 교환 등의 협력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품목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
 - ※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전략광물 등 핵심품목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
- 양국 협력이 급물살을 타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이 원활하게 차세대 EUV 장비를 수급 받는다면 '25년 본격화될 2nm 반도체 공정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기대
- 또한 한국의 설계·소재·부품·장비·제조의 전 주기를 연결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맹 형성에 한 걸음 전진



III

부록



III 부록

1 ICT 생산 통계

표 3-1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잠정)

(단위 : 억 원,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9월 당월			9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ICT 전체	5,474,174	1.3	100.0	433,599	-3.8	100.0	3,716,057	-10.4	100.0
○ 정보통신방송기기	3,677,696	-0.8	67.2	284,178	-5.1	65.5	2,350,689	-16.5	63.3
- 전자부품	2,264,882	-2.4	41.4	174,125	-8.0	40.2	1,326,679	-24.0	35.7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83,630	0.1	3.4	11,219	-31.5	2.6	95,205	-35.2	2.6
- 통신 및 방송기기	360,569	-2.4	6.6	32,174	24.6	7.4	285,643	5.0	7.7
- 영상 및 음향기기	86,049	1.0	1.6	6,226	-2.7	1.4	57,172	-13.6	1.5
- 정보통신응용기기	782,565	4.4	14.3	60,434	-1.9	13.9	585,990	0.1	15.8
○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79,322	3.5	16.1	74,232	0.6	17.1	681,431	4.2	18.3
- 통신서비스	377,332	0.6	6.9	31,186	-1.3	7.2	284,743	0.8	7.7
· 유선통신서비스	102,469	0.2	1.9	8,328	-2.8	1.9	77,459	1.5	2.1
· 무선통신서비스	252,783	0.5	4.6	20,836	-1.7	4.8	189,774	0.1	5.1
· 통신재판매 및 중개서비스	22,080	3.0	0.4	2,022	10.1	0.5	17,509	5.3	0.5
- 방송서비스	227,128	7.1	4.1	18,245	-4.1	4.2	165,573	-1.0	4.5
· 지상파방송서비스	42,703	6.9	0.8	3,261	-7.7	0.8	27,829	-7.6	0.7
· 유료방송서비스	73,038	4.2	1.3	6,160	1.1	1.4	57,081	4.5	1.5
· 방송프로그램 제작·공급	110,946	9.3	2.0	8,782	-6.3	2.0	80,284	-2.3	2.2
· 기타방송서비스	441	-8.0	0.0	43	22.1	0.0	379	14.6	0.0
- 정보서비스	274,862	4.9	5.0	24,800	7.0	5.7	231,116	13.3	6.2
· 정보인프라서비스	45,770	4.8	0.8	3,997	3.1	0.9	36,067	5.5	1.0
· 정보매개 및 제공서비스	229,092	4.9	4.2	20,803	7.8	4.8	195,048	14.8	5.2
○ 소프트웨어	917,156	8.8	16.8	75,189	-2.7	17.3	683,937	1.1	18.4
- 패키지 소프트웨어	199,522	15.9	3.6	16,542	-4.5	3.8	150,722	5.2	4.1
- 게임 소프트웨어	192,832	7.0	3.5	16,568	-1.2	3.8	143,134	0.7	3.9
- IT 서비스	524,802	6.9	9.6	42,078	-2.6	9.7	390,081	-0.3	10.5

자료 : KEA, KAIT, 2023.12.



표 3-2 전체산업/ICT산업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구 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2016년	4,954.3	1,624.6	-6.0	4,061.9	898.1	-1.7	892.3	726.5
2017년	5,736.9	1,975.7	21.6	4,784.8	1,020.7	13.7	952.2	955.0
2018년	6,048.6	2,203.4	11.5	5,352.0	1,071.2	4.9	696.6	1,132.2
2019년	5,422.3	1,768.6	-19.7	5,033.4	1,083.7	1.2	388.9	684.9
2020년	5,125.0	1,835.1	3.8	4,676.3	1,126.3	3.9	448.7	708.8
2021년	6,444.0	2,276.1	24.0	6,150.9	1,350.2	19.9	293.1	925.8
2022년	6,835.8	2,332.3	2.5	7,313.7	1,524.9	12.9	-477.8	807.4
1/4분기	1,734.0	617.2	26.1	1,779.0	366.1	18.4	-45.0	251.1
2/4분기	1,771.1	607.4	12.3	1,835.3	378.1	18.5	-64.2	229.3
3/4분기	1,740.2	594.2	-2.7	1,923.0	396.8	16.4	-182.8	197.4
4/4분기	1,590.5	513.6	-19.2	1,776.4	383.9	0.7	-185.9	129.7
상반기	3,505.1	1,224.6	18.9	3,614.3	744.2	18.5	-109.2	480.4
하반기	3,330.7	1,107.8	-11.1	3,699.4	780.7	8.1	-368.7	327.1
2023년	5,751.2	1,685.2	-22.1	5,894.3	1,255.6	-10.8	-143.1	429.6
1/4분기	1,512.3	416.4	-32.5	1,740.0	351.1	-4.1	-227.6	65.3
2/4분기	1,558.0	432.7	-28.8	1,593.1	331.2	-12.4	-35.1	101.5
3/4분기	1,572.1	486.8	-18.1	1,506.7	332.7	-16.1	65.4	154.1
상반기	3,070.3	849.1	-30.7	3,333.1	682.4	-8.3	-262.8	166.7
1월	463.5	130.7	-33.4	590.0	122.4	-0.8	-126.5	8.2
2월	500.0	128.0	-32.1	553.7	110.2	-3.3	-53.7	17.8
3월	548.9	157.7	-32.2	596.3	118.5	-7.9	-47.4	39.2
4월	494.5	127.7	-36.0	519.6	104.7	-13.8	-25.1	23.0
5월	521.0	144.5	-28.5	543.0	112.1	-11.2	-22.1	32.4
6월	542.4	160.5	-22.1	530.4	114.5	-12.3	12.0	46.1
7월	505.1	146.1	-24.3	487.1	114.3	-13.6	18.0	31.8
8월	520.3	160.3	-16.8	509.9	110.8	-18.0	10.5	49.5
9월	546.7	180.4	-13.5	509.7	107.7	-16.8	37.0	72.7
10월	550.8	170.5	-4.5	534.6	126.2	-8.3	16.4	44.4
11월	558.0	178.8	7.6	520.0	114.4	-10.9	38.0	64.4

자료 : IITP, KTSPI

표 3-3 | 주요 ICT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2.5	100.0	17,878	7.6	100.0	168,518	-22.1	100.0
○전자부품	166,917	1.1	71.6	12,511	8.6	70.0	117,290	-24.4	69.6
- 반도체	130,865	1.7	56.1	9,563	10.7	53.5	88,639	-27.1	52.6
· 메모리반도체	73,753	-10.5	31.6	5,240	36.4	29.3	44,395	-36.0	26.3
· 시스템반도체	50,670	27.5	21.7	3,886	-8.1	21.7	39,293	-15.3	23.3
- 디스플레이	24,413	-1.0	10.5	2,084	3.7	11.7	19,210	-15.8	11.4
- 전자관	6	20.3	0.0	1	9.2	0.0	9	84.7	0.0
- 수동부품	2,148	-8.4	0.9	173	-4.7	1.0	2,141	8.9	1.3
PCB	5,952	2.8	2.6	414	-1.5	2.3	4,285	-23.2	2.5
- 접속부품	3,312	-0.8	1.4	259	3.0	1.4	2,831	-7.2	1.7
- 기타전자부품	148	-7.6	0.1	10	-5.1	0.1	122	-9.8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0.5	7.4	752	-22.7	4.2	8,258	-48.8	4.9
- 컴퓨터	1,019	-55.6	0.4	115	41.1	0.6	975	7.6	0.6
- 주변기기	16,274	7.8	7.0	637	-28.6	3.6	7,283	-52.2	4.3
· 디스플레이장치	1,325	77.8	0.6	115	7.3	0.6	1,333	10.3	0.8
· 프린터(부분품포함)	460	10.8	0.2	38	21.1	0.2	357	-15.7	0.2
· 보조기억장치	13,456	3.9	5.8	395	-41.6	2.2	4,764	-62.3	2.8
○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5.4	7.6	1,761	7.0	9.8	14,198	-13.6	8.4
- 통신기기	17,573	8.7	7.5	1,753	6.8	9.8	14,119	-13.7	8.4
· 유선통신기기	1,210	26.5	0.5	86	-8.2	0.5	927	-16.4	0.6
· 무선통신기기	16,363	7.6	7.0	1,667	7.7	9.3	13,192	-13.6	7.8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4.9	6.3	1,548	12.2	8.7	11,863	-13.6	7.0
※ 통신장비	2,901	33.2	1.2	205	-21.6	1.1	2,256	-14.7	1.3
- 방송용 장비	74	-87.0	0.0	7	50.0	0.0	79	17.3	0.0
○영상 및 음향기기	2,153	-9.1	0.9	157	-0.7	0.9	1,688	-15.6	1.0
- 영상기기	1,250	-18.1	0.5	81	-1.7	0.5	930	-20.3	0.6
· TV	735	-31.0	0.3	42	2.6	0.2	495	-29.0	0.3
LCD TV	48	42.8	0.0	1	-71.2	0.0	12	-74.6	0.0
TV 부분품	664	-34.5	0.3	37	11.0	0.2	450	-28.6	0.3
· 셋탑박스	18	-17.8	0.0	2	96.3	0.0	18	6.8	0.0
- 음향기기	840	4.8	0.4	63	-2.2	0.4	700	-10.2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65.0	0.0	13	14.5	0.1	58	6.0	0.0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12.2	12.5	2,698	16.1	15.1	27,083	1.9	16.1
-가정용전기기기	5,863	2.7	2.5	477	21.1	2.7	5,303	-3.3	3.1
-사무용기기	343	-19.7	0.1	25	-5.7	0.1	292	-5.1	0.2
-의료용기기	2,790	8.8	1.2	286	11.5	1.6	2,637	3.5	1.6
-전기 장비	13,578	13.9	5.8	1,166	15.8	6.5	12,082	-1.7	7.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0,119	15.3	4.3	909	23.3	5.1	9,051	-1.0	5.4

자료 : IITP, KTSPI



표 3-4 주요 ICT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52,491	12.9	100.0	11,436	-10.9	100.0	125,562	-10.8	100.0
○전자부품	89,481	19.9	58.7	6,377	-20.0	55.8	69,432	-16.0	55.3
- 반도체	75,146	21.8	49.3	5,252	-24.0	45.9	57,484	-17.1	45.8
· 메모리반도체	25,094	16.3	16.5	1,441	-23.4	12.6	16,341	-30.2	13.0
· 시스템반도체	41,292	31.2	27.1	3,171	-26.5	27.7	33,945	-10.5	27.0
- 디스플레이	4,970	28.5	3.3	446	37.6	3.9	4,229	-9.1	3.4
- 전자관	75	17.1	0.0	4	-62.0	0.0	66	-2.9	0.1
- 수동부품	2,563	-8.5	1.7	193	1.8	1.7	2,241	-5.8	1.8
PCB	3,561	14.8	2.3	250	-10.9	2.2	2,643	-19.8	2.1
- 접속부품	2,375	-5.7	1.6	180	-4.0	1.6	2,117	-2.9	1.7
- 기타전자부품	697	60.0	0.5	47	-15.1	0.4	585	-8.0	0.5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454	4.2	11.4	976	-24.4	8.5	13,124	-19.2	10.5
- 컴퓨터	10,112	-1.2	6.6	536	-26.1	4.7	7,280	-23.1	5.8
- 주변기기	7,341	12.7	4.8	440	-22.3	3.8	5,844	-13.8	4.7
· 디스플레이장치	1,341	22.9	0.9	105	15.2	0.9	1,096	-12.6	0.9
· 프린터(부분품포함)	941	-2.2	0.6	67	-2.9	0.6	793	-8.1	0.6
· 보조기억장치	3,814	17.6	2.5	182	-42.1	1.6	3,009	-14.5	2.4
○통신 및 방송기기	15,182	-7.2	10.0	1,397	35.3	12.2	12,924	-9.1	10.3
- 통신기기	15,010	-5.1	9.8	1,377	35.4	12.0	12,742	-9.4	10.1
· 유선통신기기	1,890	-11.3	1.2	147	-19.1	1.3	1,773	2.3	1.4
· 무선통신기기	13,120	-4.1	8.6	1,230	47.3	10.8	10,969	-11.1	8.7
휴대폰(부분품 포함)	9,280	-8.8	6.1	1,001	76.9	8.7	7,949	-9.1	6.3
※ 통신장비	5,730	1.6	3.8	376	-16.6	3.3	4,793	-10.0	3.8
- 방송용 장비	172	-68.5	0.1	20	24.6	0.2	182	15.9	0.1
○영상 및 음향기기	3,596	-8.1	2.4	294	-2.0	2.6	2,989	-9.4	2.4
- 영상기기	2,088	-15.2	1.4	163	14.7	1.4	1,640	-15.8	1.3
· TV	1,444	-23.6	0.9	101	1.4	0.9	1,036	-23.7	0.8
LCD TV	779	-16.2	0.5	60	-3.9	0.5	594	-19.1	0.5
TV 부분품	377	-34.4	0.2	20	-2.3	0.2	210	-40.7	0.2
· 셋탑박스	192	-10.4	0.1	18	169.0	0.2	198	12.1	0.2
- 음향기기	1,174	6.9	0.8	98	-9.9	0.9	1,076	0.7	0.9
- 기타 영상음향기기	334	-5.3	0.2	33	-32.9	0.3	273	-3.7	0.2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6,778	14.5	17.6	2,392	6.7	20.9	27,092	11.7	21.6
-가정용전기기기	4,639	1.7	3.0	385	26.3	3.4	4,138	-4.3	3.3
-사무용기기	37	14.8	0.0	3	8.5	0.0	34	1.3	0.0
-의료용기기	2,379	4.1	1.6	209	2.5	1.8	2,291	6.5	1.8
-전기 장비	11,088	34.3	7.3	1,062	6.5	9.3	12,736	28.7	10.1
· 일차전지 및 축전지	6,769	61.5	4.4	723	15.3	6.3	8,914	48.3	7.1

자료 : IITP, KTSPI

표 3-5 | 주요 ICT 품목별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정보통신방송기기	233,232	152,491	80,742	17,878	11,436	6,441	42,956
○전자부품	166,917	89,481	77,436	12,511	6,377	6,134	47,858
- 반도체	130,865	75,146	55,718	9,563	5,252	4,311	31,155
· 메모리반도체	73,753	25,094	48,660	5,240	1,441	3,798	28,054
· 시스템반도체	50,670	41,292	9,378	3,886	3,171	715	5,348
- 디스플레이	24,413	4,970	19,444	2,084	446	1,639	14,981
- 전자관	6	75	-69	1	4	-3	-56
- 수동부품	2,148	2,563	-416	173	193	-19	-101
PCB	5,952	3,561	2,392	414	250	164	1,641
- 접속부품	3,312	2,375	937	259	180	79	714
- 기타전자부품	148	697	-549	10	47	-37	-463
○컴퓨터 및 주변기기	17,293	17,454	-161	752	976	-224	-4,866
- 컴퓨터	1,019	10,112	-9,093	115	536	-422	-6,305
- 주변기기	16,274	7,341	8,933	637	440	197	1,438
· 디스플레이장치	1,325	1,341	-16	115	105	10	237
· 프린터(부분품포함)	460	941	-482	38	67	-28	-436
· 보조기억장치	13,456	3,814	9,642	395	182	213	1,755
○통신 및 방송기기	17,648	15,182	2,465	1,761	1,397	364	1,275
- 통신기기	17,573	15,010	2,564	1,753	1,377	376	1,377
· 유선통신기기	1,210	1,890	-680	86	147	-61	-846
· 무선통신기기	16,363	13,120	3,243	1,667	1,230	437	2,223
휴대폰(부분품 포함)	14,672	9,280	5,393	1,548	1,001	547	3,914
※ 통신장비	2,901	5,730	-2,829	205	376	-171	-2,537
- 방송용 장비	74	172	-98	7	20	-13	-102
○영상 및 음향기기	2,153	3,596	-1,444	157	294	-137	-1,301
- 영상기기	1,250	2,088	-838	81	163	-82	-710
· TV	735	1,444	-709	42	101	-60	-541
LCD TV	48	779	-730	1	60	-59	-582
TV 부분품	664	377	287	37	20	17	239
· 셋탑박스	18	192	-174	2	18	-16	-180
- 음향기기	840	1,174	-334	63	98	-35	-376
- 기타 영상음향기기	62	334	-272	13	33	-20	-215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9,222	26,778	2,445	2,698	2,392	305	-9
- 가정용전기기기	5,863	4,639	1,224	477	385	92	1,165
- 사무용기기	343	37	305	25	3	22	258
- 의료용기기	2,790	2,379	411	286	209	77	346
- 전기 장비	13,578	11,088	2,490	1,166	1,062	104	-654
· 일차전지 및 축전지	10,119	6,769	3,351	909	723	186	136

자료 : IITP, KTSPI



표 3-6 주요 지역별 ICT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233,232	2.5	100.0	17,878	7.6	100.0	168,518	-22.1	100.0
○ 아시아	180,075	2.0	77.2	13,949	6.5	78.0	129,889	-22.4	77.1
- 중국(홍콩 포함)	102,270	-4.9	43.8	8,088	15.5	45.2	70,272	-26.4	41.7
- 일 본	4,429	2.7	1.9	321	2.1	1.8	3,843	-6.3	2.3
- ASEAN	53,710	9.5	23.0	4,295	0.1	24.0	41,646	-16.0	24.7
· 싱가포르	6,924	45.0	3.0	441	-21.8	2.5	5,050	-20.6	3.0
· 인 니	1,122	25.7	0.5	87	-9.8	0.5	984	-6.4	0.6
· 말 련	2,944	17.4	1.3	312	36.6	1.7	2,511	-7.0	1.5
· 태 국	1,530	13.0	0.7	118	-6.4	0.7	1,347	-5.3	0.8
· 베트남	36,636	4.3	15.7	3,117	4.1	17.4	29,232	-13.6	17.3
- 대 만	14,755	16.4	6.3	900	-18.3	5.0	10,066	-26.9	6.0
- 인 도	4,533	63.0	1.9	313	-11.1	1.7	3,748	-9.1	2.2
○ 북미	30,226	5.0	13.0	2,145	12.1	12.0	20,616	-25.5	12.2
- 미 국	29,141	4.3	12.5	2,062	12.5	11.5	19,910	-25.3	11.8
- 캐나다	955	33.7	0.4	70	-2.3	0.4	561	-37.4	0.3
○ 유럽	15,893	4.0	6.8	1,188	5.2	6.6	11,877	-19.3	7.0
- 유럽연합	13,732	7.5	5.9	1,017	5.4	5.7	9,983	-21.4	5.9
· 독 일	3,516	-0.2	1.5	231	16.9	1.3	2,396	-25.8	1.4
· 프랑스	901	6.7	0.4	103	45.8	0.6	804	-5.1	0.5
· 이탈리아	596	27.0	0.3	32	-31.7	0.2	358	-36.8	0.2
- 영 국	1,062	1.7	0.5	68	-7.6	0.4	746	-26.1	0.4
- 러시아	482	-39.0	0.2	39	-10.5	0.2	393	-11.7	0.2
○ 중동	1,680	5.4	0.7	129	-15.8	0.7	1,540	0.4	0.9
- 사우디	327	43.2	0.1	23	-52.7	0.1	315	7.6	0.2
- UAE	522	5.8	0.2	40	-13.5	0.2	473	-0.7	0.3
○ 중남미	4,382	1.8	1.9	370	44.2	2.1	3,716	-9.0	2.2
- 브라질	1,439	-1.3	0.6	116	33.2	0.6	1,197	-10.4	0.7
- 멕시코	2,670	6.4	1.1	234	57.0	1.3	2,272	-8.7	1.3
- 칠 레	68	-43.0	0.0	7	34.1	0.0	64	-0.4	0.0
○ 대양주	685	-5.0	0.3	43	-5.1	0.2	527	-17.8	0.3
- 호 주	599	-3.0	0.3	36	-3.9	0.2	453	-19.2	0.3
○ 아프리카	280	-9.4	0.1	54	91.8	0.3	343	43.3	0.2
※ 브릭스	108,724	-3.4	46.6	8,555	14.3	47.9	75,610	-25.4	44.9

자료 : IITP, KTSPI

표 3-7 주요 지역별 ICT 수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11월 당월			11월 누적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세계	152,491	12.9	100.0	11,436	-10.9	100.0	125,562	-10.8	100.0
○ 아시아	126,723	12.2	83.1	9,893	3.7	86.5	105,709	-9.7	84.2
- 중국(홍콩 포함)	64,726	8.4	42.4	4,337	-10.6	37.9	51,918	-13.4	41.3
- 일 본	13,590	13.5	8.9	1,062	-12.2	9.3	11,322	-8.3	9.0
- ASEAN	25,741	10.3	16.9	1,858	-2.6	16.2	23,225	-2.7	18.5
· 싱가포르	4,701	15.3	3.1	228	-29.5	2.0	4,140	-3.0	3.3
· 인 니	783	-15.4	0.5	71	34.2	0.6	708	-2.5	0.6
· 말 련	4,055	12.6	2.7	323	-11.6	2.8	3,722	-0.1	3.0
· 태 국	2,115	5.4	1.4	165	3.8	1.4	1,885	-3.6	1.5
· 베트남	12,225	9.4	8.0	924	11.0	8.1	11,064	-3.7	8.8
- 대 만	22,536	26.8	14.8	1,666	6.5	14.6	18,174	-12.4	14.5
- 인 도	116	10.1	0.1	9	-3.5	0.1	99	-6.9	0.1
○ 북미	9,000	-1.0	5.9	694	-3.2	6.1	7,962	-2.8	6.3
- 미 국	8,563	-1.8	5.6	666	-1.2	5.8	7,612	-2.4	6.1
- 캐나다	307	24.7	0.2	21	-36.6	0.2	257	-7.5	0.2
○ 유럽	8,719	10.0	5.7	712	-6.2	6.2	8,174	3.2	6.5
- 유럽연합	7,614	10.7	5.0	616	-4.8	5.4	7,149	3.1	5.7
· 독 일	3,523	7.3	2.3	279	-2.6	2.4	3,110	-3.6	2.5
· 프랑스	1,204	29.5	0.8	101	-2.9	0.9	1,067	-3.4	0.8
· 이탈리아	377	6.0	0.2	28	-21.7	0.2	428	23.6	0.3
- 영 국	572	1.8	0.4	45	-3.1	0.4	585	14.4	0.5
- 러시아	18	-28.1	0.0	1	-51.0	0.0	10	-37.2	0.0
○ 중동	666	1.7	0.4	39	-22.9	0.3	661	7.9	0.5
- 사우디	1	-53.1	0.0	0	1,454.5	0.0	2	71.2	0.0
- UAE	9	-80.2	0.0	1	-58.0	0.0	8	3.4	0.0
○ 중남미	925	-6.0	0.6	87	17.2	0.8	930	10.0	0.7
- 브라질	7	-54.4	0.0	1	16.4	0.0	9	35.7	0.0
- 멕시코	913	-5.4	0.6	87	17.6	0.8	916	9.7	0.7
- 칠 레	2	88.1	0.0	0	-66.5	0.0	2	9.9	0.0
○ 대양주	119	4.2	0.1	7	14.7	0.1	94	-15.1	0.1
- 호 주	98	23.6	0.1	5	-17.4	0.0	66	-28.0	0.1
○ 아프리카	13	-27.5	0.0	1	164.5	0.0	9	-30.8	0.0
※ 브릭스	64,867	8.4	42.5	4,347	-10.6	38.0	52,037	-13.4	41.4

자료 : IITP, KTSPI



표 3-8 주요 지역별 ICT 무역수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11월 당월			11월 누적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수지
전세계	233,232	152,491	80,742	17,878	11,436	6,441	42,956
○ 아시아	180,075	126,723	53,352	13,949	9,893	4,057	24,179
- 중국(홍콩 포함)	102,270	64,726	37,544	8,088	4,337	3,751	18,353
- 일 본	4,429	13,590	-9,161	321	1,062	-741	-7,479
- ASEAN	53,710	25,741	27,968	4,295	1,858	2,437	18,422
· 싱가포르	6,924	4,701	2,223	441	228	213	911
· 인 니	1,122	783	340	87	71	16	276
· 말 련	2,944	4,055	-1,110	312	323	-11	-1,211
· 태 국	1,530	2,115	-585	118	165	-47	-538
· 베트남	36,636	12,225	24,411	3,117	924	2,193	18,167
- 대 만	14,755	22,536	-7,781	900	1,666	-765	-8,108
- 인 도	4,533	116	4,418	313	9	304	3,649
○ 북미	30,226	9,000	21,226	2,145	694	1,451	12,655
- 미 국	29,141	8,563	20,578	2,062	666	1,396	12,298
- 캐나다	955	307	648	70	21	49	304
○ 유럽	15,893	8,719	7,174	1,188	712	475	3,703
- 유럽연합	13,732	7,614	6,118	1,017	616	401	2,834
· 독 일	3,516	3,523	-7	231	279	-48	-714
· 프랑스	901	1,204	-303	103	101	2	-263
· 이탈리아	596	377	219	32	28	4	-70
- 영 국	1,062	572	489	68	45	22	161
- 러시아	482	18	464	39	1	38	384
○ 중동	1,680	666	1,014	129	39	90	879
- 사우디	327	1	326	23	0	23	314
- UAE	522	9	513	40	1	40	464
○ 중남미	4,382	925	3,457	370	87	282	2,786
- 브라질	1,439	7	1,431	116	1	115	1,188
- 멕시코	2,670	913	1,757	234	87	147	1,357
- 칠 레	68	2	66	7	0	7	62
○ 대양주	685	119	566	43	7	36	433
- 호 주	599	98	501	36	5	32	388
○ 아프리카	280	13	267	54	1	53	334
※ 브릭스	108,724	64,867	43,857	8,555	4,347	4,208	23,574

자료 : IITP, KTSPI

3 주요국 ICT 수출입 통계

표 3-9 중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2,587	0.2	100.0	997	-9.8	100.0	9,585	-8.4	100.0
○ 전자부품	3,511	1.2	27.9	236	-18.2	23.7	2,564	-12.8	26.7
- 반도체	2,636	7.0	20.9	178	-18.7	17.9	1,944	-12.3	20.3
- 디스플레이 패널	151	-54.0	1.2	15	36.9	1.5	132	3.5	1.4
- 전자관	1	-4.9	0.0	0	65.7	0.0	1	24.8	0.0
- 수동부품	202	16.8	1.6	7	-62.3	0.7	103	-35.8	1.1
- PCB	199	-4.5	1.6	15	-1.9	1.5	145	-13.6	1.5
- 접속부품	269	4.4	2.1	18	-14.1	1.8	202	-10.0	2.1
- 기타 전자부품	52	44.0	0.4	3	-21.2	0.3	37	-17.1	0.4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537	4.1	20.2	174	-16.9	17.5	1,741	-19.3	18.2
- 컴퓨터	1,566	-6.8	12.4	101	-26.8	10.1	1,012	-24.2	10.6
- 주변기기	971	28.5	7.7	74	1.9	7.4	729	-11.4	7.6
· 디스플레이장치	217	0.5	1.7	14	9.5	1.4	144	-24.9	1.5
· 프린터(부품포함)	150	5.9	1.2	9	-26.8	0.9	109	-11.4	1.1
· 보조기억장치	138	-25.2	1.1	12	11.9	1.2	98	-13.4	1.0
· 저장 매체	291	749.1	2.3	24	9.2	2.4	247	0.0	2.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76	-2.4	1.4	14	1.3	1.4	130	-11.2	1.4
○ 통신 및 방송기기	2,441	-11.3	19.4	259	3.2	26.0	1,797	-10.8	18.7
- 통신기기	2,431	-6.9	19.3	258	3.3	25.9	1,789	-10.8	18.7
· 유선통신기기	548	1.9	4.4	37	-35.3	3.7	371	-17.3	3.9
· 무선통신기기	1,501	-27.6	11.9	193	20.5	19.3	1,146	-7.7	12.0
- 방송국용 기기	107	-19.5	0.8	9	-3.1	0.9	88	-0.5	0.9
○ 영상 및 음향기기	879	5.1	7.0	71	-16.0	7.1	730	1.4	7.6
- 영상기기	326	-19.0	2.6	27	3.5	2.7	273	0.4	2.9
- 음향기기	272	1.2	2.2	19	-24.9	1.9	198	-11.5	2.1
- 기타 영상음향기기	184	12.0	1.5	16	-33.0	1.6	179	24.6	1.9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3,219	5.0	25.6	257	-5.3	25.8	2,753	4.8	28.7
- 가정용 기기	1,094	-7.4	8.7	85	3.0	8.6	918	-0.7	9.6
- 사무용 기기	59	20.4	0.5	4	-17.8	0.4	43	-10.8	0.4
- 의료용 기기	157	-13.6	1.3	13	-5.9	1.3	136	6.7	1.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49	-7.3	2.0	20	-5.7	2.0	232	16.9	2.4
- 전기 장비	1,644	18.8	13.1	133	-9.7	13.3	1,407	6.9	14.7
· 건전지 및 축전지	636	75.8	5.1	62	7.1	6.2	621	27.4	6.5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0 중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7,553	-8.0	100.0	605	-3.1	100.0	5,308	-16.2	100.0
○전자부품	5,656	-3.4	74.9	428	-8.0	70.8	3,841	-19.3	72.4
- 반도체	4,762	-4.3	63.0	351	-9.6	58.1	3,225	-19.7	60.8
- 디스플레이 패널	405	28.7	5.4	45	14.9	7.4	302	-8.7	5.7
- 전자관	2	-18.1	0.0	0	-8.0	0.0	1	-1.6	0.0
- 수동부품	190	-14.9	2.5	11	-19.0	1.9	115	-27.0	2.2
- PCB	107	-12.7	1.4	7	-13.3	1.2	67	-26.9	1.3
- 접속부품	186	-12.4	2.5	13	-10.4	2.1	127	-19.0	2.4
- 기타 전자부품	4	-4.2	0.1	0	-22.4	0.0	3	-22.4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512	-3.5	6.8	57	61.2	9.5	404	-6.8	7.6
- 컴퓨터	44	1.7	0.6	6	84.5	1.0	56	55.6	1.1
- 주변기기	469	-3.9	6.2	51	58.7	8.4	348	-12.5	6.6
· 디스플레이장치	4	-23.6	0.1	0	-36.0	0.1	3	-6.4	0.1
· 프린터(부품포함)	54	-14.2	0.7	3	-24.1	0.6	40	-9.4	0.8
· 보조기억장치	230	-21.4	3.0	15	6.0	2.6	128	-35.7	2.4
· 저장 매체	109	129.1	1.4	7	-6.0	1.2	72	-21.4	1.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72	-9.7	1.0	24	425.5	4.0	106	74.2	2.0
○통신 및 방송기기	277	-56.4	3.7	25	-1.8	4.1	196	-14.8	3.7
- 통신기기	276	-52.1	3.7	25	-1.7	4.1	195	-14.9	3.7
· 유선통신기기	102	9.1	1.3	11	4.2	1.8	79	-5.6	1.5
· 무선통신기기	60	-87.5	0.8	5	23.7	0.9	51	2.6	1.0
- 방송국용 기기	25	-9.8	0.3	2	-3.5	0.4	21	0.0	0.4
○영상 및 음향기기	259	11.4	3.4	31	0.8	5.1	200	-4.7	3.8
- 영상기기	190	1.6	2.5	26	6.1	4.2	149	-1.9	2.8
- 음향기기	39	1.6	0.5	2	-31.5	0.4	24	-26.7	0.5
- 기타 영상음향기기	7	-12.4	0.1	1	-16.2	0.1	8	30.5	0.1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849	-11.4	11.2	64	-5.5	10.6	667	-4.8	12.6
- 가정용 기기	194	-11.0	2.6	12	-14.1	2.0	141	-14.2	2.6
- 사무용 기기	4	-14.2	0.1	0	-21.5	0.0	2	-29.7	0.0
- 의료용 기기	116	-14.6	1.5	10	9.9	1.7	106	12.3	2.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14	-20.3	4.2	25	-3.2	4.1	259	0.9	4.9
- 전기 장비	187	-9.0	2.5	13	-11.0	2.2	128	-17.7	2.4
· 건전지 및 축전지	62	-15.8	0.8	4	-15.9	0.7	39	-25.3	0.7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1 미국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3,020	6.1	100.0	271	0.1	100.0	2,533	1.2	100.0
○ 전자부품	1,045	3.2	34.6	83	-8.0	30.8	779	-11.1	30.8
- 반도체	783	0.9	25.9	61	-11.2	22.4	557	-15.2	22.0
- 디스플레이 패널	34	-3.1	1.1	3	-0.3	1.0	27	-6.8	1.1
- 전자관	4	2.7	0.1	0	8.9	0.2	4	30.2	0.1
- 수동부품	41	7.5	1.3	3	-9.9	1.1	32	-6.6	1.3
- PCB	13	9.8	0.4	1	-10.5	0.4	10	-12.0	0.4
- 접속부품	167	14.5	5.5	15	6.3	5.7	147	5.1	5.8
- 기타 전자부품	3	32.6	0.1	0	-17.1	0.1	3	-1.9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420	7.7	13.9	37	-10.9	13.8	354	2.4	14.0
- 컴퓨터	176	4.9	5.8	18	6.6	6.5	153	5.6	6.1
- 주변기기	244	9.9	8.1	20	-22.3	7.3	200	0.0	7.9
· 디스플레이장치	18	21.7	0.6	2	-1.0	0.6	14	-9.8	0.5
· 프린터(부품포함)	35	1.7	1.2	3	-8.2	1.1	30	2.7	1.2
· 보조기억장치	55	7.3	1.8	4	-47.6	1.4	41	-7.5	1.6
· 저장 매체	81	12.4	2.7	7	-17.1	2.6	58	-12.6	2.3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55	11.2	1.8	4	-8.7	1.6	57	27.8	2.3
○ 통신 및 방송기기	394	1.5	13.0	39	9.0	14.3	360	12.6	14.2
- 통신기기	382	10.1	12.6	38	8.7	13.9	349	12.7	13.8
· 유선통신기기	196	15.7	6.5	21	8.4	7.6	195	23.8	7.7
· 무선통신기기	167	-6.1	5.5	16	10.4	5.8	137	0.7	5.4
- 방송국용 기기	30	5.0	1.0	3	28.2	1.2	30	24.2	1.2
○ 영상 및 음향기기	104	21.2	3.4	11	9.7	4.1	95	11.2	3.8
- 영상기기	30	-7.4	1.0	2	-9.8	0.9	23	-12.2	0.9
- 음향기기	38	5.6	1.3	4	5.7	1.5	35	10.5	1.4
- 기타 영상음향기기	17	6.1	0.6	3	22.1	1.0	19	32.3	0.7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058	9.0	35.0	100	8.5	37.0	945	7.8	37.3
- 가정용 기기	170	0.3	5.6	16	6.1	5.9	149	4.7	5.9
- 사무용 기기	11	13.8	0.4	1	-9.6	0.3	9	5.2	0.4
- 의료용 기기	301	8.2	10.0	28	6.6	10.4	278	12.2	11.0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97	0.2	9.8	26	1.5	9.6	255	3.6	10.1
- 전기 장비	251	15.6	8.3	26	22.1	9.8	228	9.7	9.0
· 건전지 및 축전지	58	11.9	1.9	8	47.6	2.9	58	22.1	2.3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2 미국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6,986	10.5	100.0	634	-0.3	100.0	5,461	-6.9	100.0
○전자부품	1,247	12.4	17.9	108	2.3	17.1	1,020	-2.0	18.7
- 반도체	967	12.5	13.8	86	6.0	13.6	797	-1.1	14.6
- 디스플레이 패널	29	-18.4	0.4	2	-13.8	0.3	24	-3.3	0.4
- 전자관	3	-4.1	0.0	0	-15.4	0.0	2	-8.3	0.0
- 수동부품	50	17.9	0.7	4	-4.3	0.6	37	-13.1	0.7
- PCB	28	18.5	0.4	2	-27.4	0.3	20	-13.6	0.4
- 접속부품	162	16.5	2.3	14	-6.8	2.1	134	-1.0	2.5
- 기타 전자부품	9	31.4	0.1	1	-25.4	0.1	6	-15.2	0.1
○컴퓨터 및 주변기기	1,668	6.2	23.9	136	-10.0	21.4	1,123	-20.6	20.6
- 컴퓨터	1,015	3.3	14.5	93	-2.3	14.6	720	-16.4	13.2
- 주변기기	653	11.2	9.3	43	-22.9	6.8	403	-27.1	7.4
· 디스플레이장치	112	11.1	1.6	8	15.8	1.3	72	-27.4	1.3
· 프린터(부품포함)	147	4.7	2.1	10	-29.1	1.5	99	-19.5	1.8
· 보조기억장치	111	6.3	1.6	6	-41.4	1.0	61	-36.2	1.1
· 저장 매체	183	12.8	2.6	11	-21.8	1.7	98	-36.3	1.8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00	25.6	1.4	8	-23.8	1.3	72	-9.8	1.3
○통신 및 방송기기	1,343	6.2	19.2	137	0.8	21.5	1,034	-7.7	18.9
- 통신기기	1,305	14.6	18.7	133	1.6	21.0	1,008	-7.4	18.5
· 유선통신기기	536	20.9	7.7	49	-10.4	7.7	437	-0.6	8.0
· 무선통신기기	727	4.4	10.4	81	11.7	12.8	540	-11.9	9.9
- 방송국용 기기	127	8.4	1.8	11	-12.9	1.8	96	-9.6	1.8
○영상 및 음향기기	562	21.7	8.0	59	-3.5	9.3	439	-7.2	8.0
- 영상기기	160	-14.3	2.3	17	-3.4	2.7	122	-10.4	2.2
- 음향기기	183	11.7	2.6	20	2.1	3.1	141	-9.0	2.6
- 기타 영상음향기기	130	16.6	1.9	14	-8.1	2.2	106	-1.5	1.9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166	13.0	31.0	194	6.5	30.7	1,845	1.5	33.8
- 가정용 기기	612	6.5	8.8	53	9.4	8.3	492	-6.1	9.0
- 사무용 기기	35	25.8	0.5	3	-17.6	0.4	26	-9.9	0.5
- 의료용 기기	396	9.0	5.7	39	13.8	6.2	348	5.9	6.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307	2.3	4.4	28	1.9	4.4	266	4.7	4.9
- 전기 장비	795	22.2	11.4	70	3.7	11.1	693	4.4	12.7
· 건전지 및 축전지	248	53.8	3.5	25	10.7	3.9	252	26.8	4.6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3 | 일본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엔,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93,456	11.6	100.0	17,338	-6.4	100.0	152,323	-4.5	100.0
○전자부품	102,999	13.9	53.2	9,174	-5.9	52.9	79,007	-7.4	51.9
- 반도체	64,471	18.2	33.3	5,911	-4.0	34.1	50,744	-5.0	33.3
- 디스플레이 패널	7,828	2.8	4.0	631	-15.3	3.6	5,099	-21.1	3.3
- 전자관	307	6.8	0.2	22	-21.5	0.1	255	-0.3	0.2
- 수동부품	12,360	6.6	6.4	1,078	-2.4	6.2	9,412	-9.1	6.2
- PCB	4,250	27.4	2.2	359	-17.0	2.1	3,053	-13.0	2.0
- 접속부품	12,783	4.4	6.6	1,098	-8.9	6.3	9,784	-7.2	6.4
- 기타 전자부품	999	26.5	0.5	75	-9.2	0.4	660	-21.3	0.4
○컴퓨터 및 주변기기	15,562	9.4	8.0	1,456	0.1	8.4	12,833	1.6	8.4
- 컴퓨터	1,168	12.3	0.6	102	-6.1	0.6	1,128	23.7	0.7
- 주변기기	14,393	9.2	7.4	1,353	0.6	7.8	11,705	-0.1	7.7
· 디스플레이장치	1,242	-7.2	0.6	113	-13.5	0.7	1,013	2.5	0.7
· 프린터(부품포함)	10,168	8.1	5.3	981	3.7	5.7	8,258	-0.3	5.4
· 보조기억장치	143	-18.8	0.1	8	-45.5	0.0	84	-30.5	0.1
· 저장 매체	2,210	30.1	1.1	195	-1.2	1.1	1,820	0.5	1.2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630	11.3	0.3	57	0.4	0.3	531	2.2	0.3
○통신 및 방송기기	4,601	-37.3	2.4	409	-16.7	2.4	3,793	1.3	2.5
- 통신기기	4,574	10.7	2.4	404	-17.2	2.3	3,768	1.2	2.5
· 유선통신기기	1,321	23.4	0.7	139	1.3	0.8	1,271	18.7	0.8
· 무선통신기기	1,607	-47.5	0.8	114	-27.1	0.7	1,218	-10.4	0.8
- 방송국용 기기	3,568	22.9	1.8	355	10.1	2.0	3,017	4.4	2.0
○영상 및 음향기기	9,276	53.9	4.8	839	-28.2	4.8	7,784	0.0	5.1
- 영상기기	2,156	-9.4	1.1	176	-10.4	1.0	1,653	-7.1	1.1
- 음향기기	540	12.0	0.3	49	-11.1	0.3	437	0.1	0.3
- 기타 영상음향기기	3,039	-4.0	1.6	264	-55.9	1.5	2,703	0.3	1.8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61,017	10.3	31.5	5,461	-3.6	31.5	48,906	-2.2	32.1
- 가정용 기기	11,948	3.2	6.2	996	-4.1	5.7	9,143	-7.3	6.0
- 사무용 기기	413	-0.6	0.2	35	-12.8	0.2	337	-2.0	0.2
- 의료용 기기	7,675	15.3	4.0	793	3.8	4.6	6,655	7.6	4.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23,497	6.6	12.1	2,043	-7.6	11.8	18,756	-3.0	12.3
- 전기 장비	16,166	10.7	8.4	1,463	-1.2	8.4	12,774	-3.3	8.4
· 건전지 및 축전지	8,678	12.0	4.5	759	-2.9	4.4	6,760	-4.3	4.4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4 일본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엔, %)

구 분	2022년			2023년					
				10월 당월			10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12,548	22.6	100.0	21,335	1.7	100.0	176,426	0.9	100.0
○전자부품	66,186	39.1	31.1	5,525	-13.4	25.9	51,700	-4.9	29.3
- 반도체	53,372	43.1	25.1	4,477	-13.8	21.0	41,760	-4.6	23.7
- 디스플레이 패널	2,055	7.9	1.0	175	-12.0	0.8	1,523	-10.7	0.9
- 전자관	159	25.1	0.1	10	-32.0	0.0	107	-4.7	0.1
- 수동부품	1,779	25.9	0.8	138	-13.3	0.6	1,315	-11.7	0.7
- PCB	1,961	21.1	0.9	175	3.9	0.8	1,598	-1.9	0.9
- 접속부품	5,644	25.3	2.7	442	-14.7	2.1	4,402	-5.6	2.5
- 기타 전자부품	1,216	75.6	0.6	107	-13.7	0.5	996	-1.8	0.6
○컴퓨터 및 주변기기	33,350	18.9	15.7	2,589	-20.1	12.1	26,082	-6.7	14.8
- 컴퓨터	18,232	12.1	8.6	1,228	-34.7	5.8	13,761	-10.3	7.8
- 주변기기	15,118	28.2	7.1	1,361	0.2	6.4	12,322	-2.2	7.0
· 디스플레이장치	1,970	3.9	0.9	192	31.4	0.9	1,653	1.8	0.9
· 프린터(부품포함)	4,967	28.0	2.3	397	-17.8	1.9	3,772	-8.0	2.1
· 보조기억장치	2,744	12.0	1.3	276	8.4	1.3	2,253	-3.8	1.3
· 저장 매체	3,185	102.8	1.5	331	14.1	1.6	2,883	9.0	1.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2,253	12.7	1.1	164	-10.5	0.8	1,760	-6.8	1.0
○통신 및 방송기기	38,978	5.9	18.3	5,959	31.3	27.9	33,097	1.9	18.8
- 통신기기	38,702	15.4	18.2	5,923	31.1	27.8	32,802	1.7	18.6
· 유선통신기기	10,050	19.8	4.7	855	-9.0	4.0	8,281	0.8	4.7
· 무선통신기기	26,736	6.3	12.6	4,897	43.1	23.0	23,009	2.6	13.0
- 방송국용 기기	3,448	26.7	1.6	380	19.5	1.8	3,303	18.2	1.9
○영상 및 음향기기	15,923	29.6	7.5	1,647	14.5	7.7	14,231	14.5	8.1
- 영상기기	6,228	-8.9	2.9	477	-10.0	2.2	4,584	-9.5	2.6
- 음향기기	3,626	10.7	1.7	378	11.3	1.8	3,251	8.3	1.8
- 기타 영상음향기기	2,897	33.6	1.4	449	66.1	2.1	3,388	88.4	1.9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58,111	19.5	27.3	5,615	4.3	26.3	51,315	7.7	29.1
- 가정용 기기	16,120	5.3	7.6	1,271	-11.9	6.0	12,615	-5.4	7.2
- 사무용 기기	761	4.8	0.4	93	43.9	0.4	819	31.9	0.5
- 의료용 기기	8,646	15.8	4.1	896	21.9	4.2	7,973	13.5	4.5
- 측정 제어 분석기기	11,145	13.1	5.2	1,079	1.8	5.1	9,984	9.7	5.7
- 전기 장비	20,630	35.0	9.7	2,198	10.0	10.3	19,247	13.8	10.9
· 건전지 및 축전지	4,342	52.0	2.0	574	33.0	2.7	4,560	27.7	2.6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5 | 대만 ICT 품목별 수출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금액	증가율	비중	9월 당월			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2,906	10.3	100.0	260	9.5	100.0	2,031	-7.4	100.0
○ 전자부품	2,306	12.3	79.3	182	-2.5	70.2	1,540	-11.8	75.8
- 반도체	2,101	15.9	72.3	168	-2.2	64.7	1,416	-10.7	69.7
- 디스플레이 패널	65	-35.8	2.2	5	44.6	2.1	45	-13.5	2.2
- 전자관	0	-24.8	0.0	0	-15.7	0.0	0	-1.8	0.0
- 수동부품	38	-9.9	1.3	3	-7.3	1.0	23	-21.2	1.1
- PCB	70	6.1	2.4	4	-34.8	1.6	37	-31.3	1.8
- 접속부품	31	2.2	1.1	2	-6.2	0.8	19	-22.4	0.9
- 기타 전자부품	0	-3.2	0.0	0	10.4	0.0	0	-15.2	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249	5.2	8.6	53	145.3	20.3	257	40.5	12.7
- 컴퓨터	104	17.5	3.6	19	122.2	7.5	95	27.9	4.7
- 주변기기	145	-2.1	5.0	33	161.3	12.8	162	49.2	8.0
· 디스플레이장치	6	-7.0	0.2	1	24.3	0.2	4	-12.3	0.2
· 프린터(부품포함)	4	13.2	0.1	0	-7.1	0.1	3	-11.9	0.1
· 보조기억장치	7	-13.9	0.2	1	5.9	0.2	5	-11.4	0.2
· 저장 매체	87	-17.5	3.0	10	22.5	3.7	58	-16.5	2.9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40	70.7	1.4	22	540.9	8.5	92	262.4	4.5
○ 통신 및 방송기기	155	22.1	5.3	12	-15.4	4.6	110	-2.7	5.4
- 통신기기	140	24.8	4.8	12	-8.2	4.5	103	0.5	5.1
· 유선통신기기	101	29.1	3.5	8	-10.8	3.2	77	5.5	3.8
· 무선통신기기	39	14.9	1.3	1	-75.0	0.3	19	-37.1	0.9
- 방송국용 기기	15	12.4	0.5	1	-7.1	0.5	11	-4.3	0.5
○ 영상 및 음향기기	55	-33.1	1.9	3	-27.6	1.0	31	-27.5	1.5
- 영상기기	49	-35.6	1.7	1	-63.3	0.5	24	-36.5	1.2
- 음향기기	5	-7.3	0.2	0	4.3	0.1	3	-21.2	0.2
- 기타 영상음향기기	1	74.3	0.0	0	41.8	0.0	0	14.5	0.0
○ 정보통신응용 · 기반기기	141	5.1	4.9	10	-8.0	3.9	92	-14.2	4.5
- 가정용 기기	27	2.1	0.9	2	-7.5	0.8	17	-19.5	0.8
- 사무용 기기	8	8.3	0.3	0	-25.0	0.2	5	-18.0	0.2
- 의료용 기기	7	3.9	0.3	1	4.5	0.2	5	-1.5	0.3
- 측정 제어 분석기기	45	5.5	1.6	3	-15.7	1.2	31	-8.6	1.5
- 전기 장비	54	6.2	1.9	4	-9.1	1.4	34	-19.8	1.7
· 건전지 및 축전지	13	31.2	0.4	1	-19.4	0.3	7	-28.6	0.3

자료 : Uncomtrade, KITA



표 3-16 대만 ICT 품목별 수입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2년			2023년					
				9월 당월			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ICT 전체	1,535	6.7	100.0	112	-5.7	100.0	939	-20.9	100.0
○ 전자부품	1,157	7.6	75.4	81	-7.9	72.4	693	-23.3	73.8
- 반도체	1,042	8.8	67.8	73	-7.6	65.2	623	-23.5	66.3
- 디스플레이 패널	15	-18.6	1.0	1	3.5	1.0	10	-18.7	1.0
- 전자관	0	-5.8	0.0	0	15.4	0.0	0	-5.0	0.0
- 수동부품	30	-10.9	1.9	2	-11.6	1.7	17	-27.2	1.8
- PCB	42	16.3	2.7	3	-15.1	2.8	26	-19.2	2.8
- 접속부품	26	-5.5	1.7	2	-7.0	1.6	17	-19.5	1.8
- 기타 전자부품	2	-4.9	0.1	0	-18.3	0.1	1	-37.8	0.1
○ 컴퓨터 및 주변기기	92	0.0	6.0	9	25.7	8.2	58	-21.0	6.1
- 컴퓨터	36	6.7	2.4	2	-32.8	1.7	19	-30.9	2.1
- 주변기기	56	-3.9	3.7	7	63.6	6.5	38	-14.8	4.1
· 디스플레이장치	7	-9.3	0.5	1	14.9	0.5	5	-15.4	0.5
· 프린터(부품포함)	4	-4.0	0.3	0	-12.4	0.2	3	-2.1	0.3
· 보조기억장치	10	-18.9	0.6	1	-22.8	0.6	6	-19.0	0.6
· 저장 매체	25	-5.4	1.7	2	4.7	1.6	15	-28.4	1.6
· 기타 컴퓨터주변기기	10	29.7	0.7	4	265.4	3.5	10	17.1	1.1
○ 통신 및 방송기기	85	1.9	5.6	9	-2.5	7.8	56	-7.9	5.9
- 통신기기	81	6.1	5.3	9	0.5	7.8	53	-6.6	5.7
· 유선통신기기	25	4.9	1.6	2	-9.5	1.9	17	-10.7	1.8
· 무선통신기기	55	6.6	3.6	5	-17.2	4.7	32	-16.4	3.4
- 방송국용 기기	5	-0.5	0.3	0	18.1	0.3	3	2.1	0.4
○ 영상 및 음향기기	22	-12.6	1.4	2	16.8	1.5	14	-16.8	1.5
- 영상기기	14	-18.5	0.9	1	-22.2	0.7	8	-30.3	0.8
- 음향기기	6	2.0	0.4	0	0.6	0.3	4	-8.8	0.4
- 기타 영상음향기기	3	-5.1	0.2	0	202.4	0.2	2	-9.9	0.2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179	9.9	11.6	11	-12.8	10.1	119	-11.2	12.6
- 가정용 기기	43	6.6	2.8	3	-8.8	2.3	28	-14.2	2.9
- 사무용 기기	2	24.5	0.2	0	-35.9	0.1	1	-29.6	0.1
- 의료용 기기	18	16.5	1.1	1	1.4	1.1	13	6.1	1.4
- 측정 제어 분석기기	72	6.2	4.7	4	-29.0	3.4	45	-18.0	4.7
- 전기 장비	43	16.7	2.8	3	-7.2	2.8	31	-6.5	3.3
· 건전지 및 축전지	17	39.3	1.1	1	-2.6	1.2	13	6.1	1.4

자료 : Uncomtrade, KITA

4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표 3-17 ICT 부문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수출)/구매(수입) 금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기기		소프트웨어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금액	전년 동기비
직접판매 (수출)	2020	19,267	26.4	55,019	-41.4	1,071	17.8
	2021	15,008	-22.1	49,134	-10.7	1,005	-6.2
	2022	11,168	-25.6	60,029	22.2	287	-71.4
	2020.1/4	4,142	11.9	12,866	-40.0	183	22.0
	2/4	3,814	-5.5	14,052	-38.4	230	0.9
	3/4	7,722	110.4	14,965	-41.1	258	79.2
	4/4	3,589	-6.2	13,136	-45.7	400	3.4
	2021.1/4	4,239	2.3	10,759	-16.4	210	14.8
	2/4	4,450	16.7	17,117	21.8	225	-2.2
	3/4	3,612	-53.2	12,744	-14.8	235	-8.9
	4/4	2,707	-24.6	8,514	-35.2	335	-16.3
	2022.1/4	2,449	-42.2	47,739	343.7	88	-58.1
	2/4	2,867	-35.6	4,298	-74.9	63	-72.0
	3/4	2,824	-21.8	3,996	-68.6	90	-61.7
	4/4	3,028	11.9	3,996	-53.1	46	-86.3
	2023.1/4	3,026	23.6	4,334	-90.9	430	388.6
	2/4	2,527	-11.9	7,656	78.1	48	-23.8
	3/4p	3,761	33.2	5,595	40.0	45	-50.0
직접구매 (수입)	2020	52,136	4.0	338,031	-27.0	15,106	17.2
	2021	65,502	25.6	363,035	7.4	20,402	35.1
	2022	88,573	35.2	296,493	-18.3	12,724	-37.6
	2020.1/4	12,348	-6.3	90,812	-36.0	3,191	2.7
	2/4	11,167	6.4	73,828	-34.0	3,572	20.1
	3/4	9,492	0.9	59,015	-39.7	3,763	13.2
	4/4	19,129	12.2	114,376	2.6	4,580	31.4
	2021.1/4	19,096	54.6	131,603	44.9	6,856	114.9
	2/4	12,646	13.2	66,291	-10.2	4,170	16.7
	3/4	12,098	27.5	56,992	-3.4	3,839	2.0
	4/4	21,662	13.2	108,149	-5.4	5,537	20.9
	2022.1/4	24,298	27.2	77,508	-41.1	3,609	-47.4
	2/4	18,972	50.0	63,235	-4.6	3,107	-25.5
	3/4	20,429	68.9	72,027	26.4	2,997	-21.9
	4/4	24,874	14.8	83,723	-22.6	3,011	-45.6
	2023.1/4	28,757	18.4	89,519	15.5	3,246	-10.1
	2/4	26,087	37.5	92,080	45.6	3,477	11.9
	3/4p	37,008	81.2	103,184	43.3	4,592	53.2

주 : p는 잠정치

자료 : 통계청



5

주요 ICT 부문별 수출입 금액 및 물량 지수

표 3-18 주요 ICT 부문별 수출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47.2	10.6	51.3	14.9	45.5	40.3	121.3	36.1	106.4	34.5	61.3	49.7
2006	52.5	14.2	76.1	29.1	55.9	48.5	110.5	43.0	104.4	40.8	55.1	45.6
2007	62.6	22.2	93.6	48.3	53.3	47.4	108.6	49.1	111.1	50.2	70.3	58.4
2008	52.6	23.8	89.4	51.1	63.1	59.2	95.7	50.8	124.5	62.8	91.6	78.4
2009	50.1	24.1	112.9	78.9	65.1	62.2	79.4	57.5	99.1	58.9	53.0	46.9
2010	81.3	38.3	144.2	100.5	85.3	81.3	94.5	69.1	92.3	60.3	69.9	62.9
2011	80.2	62.9	132.3	110.8	98.2	93.0	99.2	81.7	92.3	66.9	79.2	72.1
2012	79.7	87.7	125.0	108.9	118.5	113.2	105.3	88.5	77.6	63.8	89.8	80.6
2013	90.3	83.8	119.4	107.3	136.1	130.7	102.0	91.6	91.4	80.0	95.0	85.9
2014	99.4	89.8	116.1	111.9	116.5	112.2	95.3	89.5	96.8	86.6	100.4	92.9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9.1	115.7	75.5	83.8	91.6	99.2	103.7	108.2	91.8	92.4	104.2	110.0
2017	156.8	146.9	93.9	88.5	113.0	126.4	142.0	150.5	71.1	73.5	124.9	139.2
2018	203.6	177.6	75.8	86.6	106.5	112.5	137.4	153.5	61.5	67.7	137.8	154.7
2019	156.2	200.1	29.8	40.3	101.8	110.4	51.4	64.4	73.4	85.2	135.5	156.3
2020	171.8	240.4	23.7	33.6	105.7	117.8	46.8	59.3	70.9	82.9	135.4	165.6
2021	220.5	284.1	23.2	27.9	122.3	125.4	52.2	68.1	89.3	107.0	158.5	191.6
2022	222.7	328.8	23.6	37.8	121.5	109.4	52.1	72.1	87.1	110.7	157.0	187.9
'22.1월	217.8	294.7	29.4	42.0	123.8	106.5	67.1	88.1	85.8	102.2	151.9	183.0
2월	212.4	286.1	27.1	39.3	118.8	102.1	63.4	83.6	81.3	99.3	151.2	180.6
3월	269.3	360.6	32.5	47.9	136.7	116.8	68.1	90.2	105.0	128.1	180.9	215.8
4월	218.4	294.6	27.8	42.0	128.7	111.1	81.6	106.5	87.0	105.8	153.7	179.0
5월	236.4	319.6	26.1	40.5	130.4	113.3	69.3	90.8	71.1	87.4	159.6	187.0
6월	255.3	347.7	20.4	33.3	124.5	109.2	56.1	75.6	73.7	94.4	148.6	180.6
7월	234.0	344.8	22.5	37.0	125.9	110.4	38.7	51.8	73.6	95.4	148.9	175.6
8월	227.7	339.8	21.9	36.6	122.5	108.8	33.8	46.3	82.8	107.1	152.8	185.0
9월	243.7	373.0	18.1	31.2	122.9	109.5	43.1	60.8	102.0	133.9	171.4	208.0
10월	191.7	332.4	19.2	33.1	114.5	102.9	33.8	51.6	108.7	142.4	155.6	185.4
11월	177.6	312.3	18.4	31.5	108.4	115.6	27.9	42.6	101.5	135.6	150.1	179.7
12월	188.0	335.9	19.1	32.6	101.3	108.0	42.7	65.2	72.2	96.4	159.9	193.6
'23.1월	122.4	237.7	15.8	27.3	98.5	104.8	22.4	34.2	84.6	113.1	127.7	151.6
2월	122.9	244.5	17.5	30.3	92.3	98.4	21.4	33.7	67.3	89.5	143.3	171.5
3월	177.0	358.0	17.7	30.2	112.0	119.4	29.5	46.5	65.2	86.4	152.3	182.1
4월	128.8	290.8	17.8	29.9	94.7	100.7	20.5	32.3	63.2	83.7	134.6	157.0
5월	152.0	345.4	19.8	32.8	109.3	116.4	29.2	47.3	70.5	92.4	142.8	167.9
6월	183.8	422.8	17.9	29.1	109.1	116.3	24.7	40.2	65.2	85.3	149.0	177.8
7월	155.1	358.5	20.5	33.1	111.9	119.6	25.5	41.3	70.4	90.4	138.3	163.3
8월	179.3	415.9	20.4	32.5	110.6	118.7	14.8	25.4	86.2	110.8	145.6	169.9
9월	210.1	486.3	20.5	32.9	108.9	117.5	19.1	32.8	99.0	127.4	158.9	183.2
10월	183.5	401.3	20.0	32.0	108.4	120.3	22.9	39.4	110.2	141.7	147.6	168.6

자료 : 한국은행

표 3-19 | 주요 ICT 부문별 수입 금액 및 물량 지수(2015=100)

구 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 방송 및 영상, 음향기기		정밀기기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금액 지수	물량 지수
2005	65.7	26.7	50.9	22.2	89.9	50.9	69.1	42.9	45.3	31.5	64.5	56.6
2006	67.7	33.2	51.5	21.9	98.1	59.9	80.9	56.7	52.9	40.0	71.1	66.0
2007	79.2	44.0	55.5	24.2	103.1	67.6	88.8	66.4	54.5	43.6	71.7	66.3
2008	83.4	52.9	68.9	31.1	110.5	76.8	84.3	68.8	60.6	49.4	72.4	67.7
2009	70.0	49.3	56.2	33.7	105.5	79.1	74.5	67.5	47.4	40.9	60.4	56.5
2010	81.8	60.4	84.2	53.6	118.8	86.3	100.4	94.8	59.6	53.6	82.4	79.1
2011	85.9	68.8	83.8	61.8	121.9	97.8	101.1	95.1	75.1	68.8	93.0	85.8
2012	83.9	74.4	90.0	71.9	122.0	108.3	96.2	88.8	49.7	46.2	103.0	97.0
2013	90.3	82.5	80.9	72.0	133.5	120.7	98.0	95.7	54.7	52.4	97.2	92.5
2014	94.9	92.0	97.9	89.8	123.6	117.9	103.7	101.3	80.2	78.7	99.7	94.5
20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16	95.2	96.7	76.2	83.9	86.5	91.5	109.9	111.1	106.3	108.9	100.8	100.0
2017	107.4	109.9	95.2	104.1	100.0	110.3	130.4	134.2	115.5	125.3	119.7	118.3
2018	115.3	119.7	105.5	134.1	96.1	105.2	140.6	143.7	114.5	130.1	124.6	121.6
2019	123.2	154.0	34.0	41.6	94.0	103.8	122.1	127.4	139.4	158.3	117.4	115.8
2020	135.9	184.8	29.3	34.5	100.4	111.7	136.0	140.9	127.2	152.4	122.8	121.8
2021	166.9	228.6	29.1	24.4	133.0	139.6	167.6	171.5	143.2	170.9	142.1	137.2
2022	204.2	298.7	35.2	51.9	131.2	137.5	171.4	178.0	135.2	167.3	144.5	144.9
'22.1월	187.8	263.0	46.4	51.4	137.2	140.9	239.5	243.6	127.7	152.2	135.4	132.4
2월	180.3	252.5	41.2	48.0	121.0	124.0	182.9	186.1	120.1	142.9	131.0	126.8
3월	197.5	276.5	37.9	45.9	138.2	141.8	194.3	199.2	154.8	184.6	150.8	146.1
4월	186.1	261.6	37.1	47.0	138.9	142.8	172.8	178.2	137.3	167.7	150.6	146.4
5월	196.7	277.8	38.2	52.0	136.4	143.8	166.4	172.3	142.8	176.6	141.9	140.0
6월	218.6	309.2	33.6	50.0	141.0	148.9	145.1	151.1	126.8	156.5	148.5	147.9
7월	220.4	327.0	28.5	44.9	135.5	143.7	170.6	178.5	122.9	151.7	149.1	149.8
8월	220.6	328.2	35.0	58.4	132.5	140.5	148.3	154.1	156.6	195.8	143.8	145.8
9월	216.0	323.9	31.8	55.5	132.3	140.6	183.8	193.4	121.1	152.0	135.5	138.3
10월	215.7	337.9	30.8	55.4	130.8	137.7	153.7	162.4	206.4	260.4	142.2	146.3
11월	224.8	346.2	30.2	55.2	119.9	126.1	154.5	162.1	107.2	137.8	141.6	148.3
12월	186.3	285.2	31.3	58.4	110.9	117.3	144.6	150.6	98.8	127.1	163.6	169.6
'23.1월	168.1	264.0	38.9	73.6	117.0	123.2	209.2	216.3	153.6	198.2	153.1	156.6
2월	160.3	252.8	32.1	60.6	104.7	109.3	203.4	209.1	109.9	143.2	121.4	123.9
3월	177.0	283.3	43.1	80.3	115.3	120.4	157.1	160.9	111.1	145.2	150.1	153.5
4월	155.5	258.4	36.7	67.5	102.4	107.8	122.5	125.8	100.0	129.6	143.7	146.5
5월	164.6	278.2	30.5	55.7	103.9	109.4	131.8	135.4	104.3	135.5	136.8	140.0
6월	175.0	296.0	32.1	58.3	108.8	115.8	121.6	125.9	106.3	137.8	146.3	149.9
7월	168.7	287.0	34.3	60.8	113.2	122.3	135.8	140.6	137.6	183.7	142.2	144.9
8월	173.8	296.7	33.9	58.5	124.4	134.6	106.3	110.0	116.2	156.2	129.4	132.1
9월	168.9	286.4	33.5	56.0	115.6	125.4	118.3	124.0	100.3	133.3	133.4	137.5
10월	182.5	300.0	38.7	64.3	124.9	137.1	119.2	125.4	196.6	261.3	146.0	151.4

자료 : 한국은행

“월간 ICT 산업 동향”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미래정책단 동향분석팀에서 수행하는 “ICT 동향분석 및 정책지원” 사업 결과의 일부로 산출된 것입니다.

총괄 책임 임진국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미래정책단장)

과제 책임 허창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장)

참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

조성선, 이효은, 도승희, 고은영, 유영신, 반치호, 최동렬, 임양섭,
장예지, 김채리, 김도현, 윤종혁

위촉연구원 최경석, 이유리, 이유경

월간 ICT 산업 동향 2023-12호

발 행 일 : 2023년 12월 29일

저 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동향분석팀

발 행 인 : 전성배(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발 행 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전 화 : 042) 612-8240, 팩스 : 042) 612-8209

홈페이지 : www.iitp.kr

본 저작물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으로 개방하였으며, 기관 홈페이지(www.iitp.kr)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내용을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